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0년 5월 8일 금요일
etoday.co.kr

제2383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코스피(7일) 1928.61(−0.15P) 코스닥 668.17(+9.77P)
환율(달러당 원화) 1225.00(+2.90원) 금리(국고채 3년물) 0.946%(−0.014%P)

巨與 새 원내대표에 '친문' 김태년 5

정용진의 '노브랜드 버거' 갓성비 통했다 13

휴직·휴업 사업장 한달 새 2만5000개

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6.2만곳
작년 전체의 41배…10인 미만 7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수가 6만20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신청 사업장보다 41배나 많은 수치다. 특히 최근 한 달 사이에 2만5000여 곳의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이 경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휴업)를 할 경우 정부가 휴직·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는 6만228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신고 사업장(1514곳)보다 41배 많으며, 전체 사업장(227만 곳)의 2.7%에 달하는 수치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사업 또는 공장 가동을 멈춘 사업장이 많다는 얘기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4만818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30인 미만 사업장 1만204곳, 30~100인 미만 사업장 2982곳, 100~300인 미만 사업장 703곳, 300인 이상 사업장 209곳 순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타격이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이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2만5637곳이나 됐다. 이는 최근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관광·숙박·공연·항공취급·면세점업 등을 비롯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90%·대기업 67%)까지 상향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2일에는 정부가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1000억 원) 추진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고용 특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먼저 빌려주고 이후에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출금을 갈음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 예산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오늘 어버이날…활짝 핀 꽃시장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중구 남대문 꽃시장이 부모님께 선물할 카네이션을 고르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AI·비대면·SOC 디지털화로 일자리 창출

정부 '한국판 뉴딜' 속도
10대 중점과제 사업 내달 발표
93만명에 50만원씩 3개월 지급

'한국판 뉴딜정책' 일환으로 인공지능(AI) 바탕의 원격교육 기반이 조성되고, 도로·철도 등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에 스마트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차원에선 다음 달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월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3개월간 지급된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5월을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5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산업 집중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10대 과제는 △데이터 수집·개방·결합·거래·활용 전주기 인프라 강화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입 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도시·산업현장 등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 인프라 확충 △전 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체계 구축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들은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선 지급 대상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한 특고·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 근로자로 정했다. 총 지원 대상은 93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고·프리랜서에는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방문판매원, 트레이너, 간병인 등이 포함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유흥·향락·도박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휴직 중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되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급된다. 첫 2개월분은 예비비 9400억 원으로 우선 지급되며, 추가분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통과 후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 수급이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별도로 지원받으면 기존에 지급받은 금액이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이 추가 지원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상반기 공공기관 2300명 신규 채용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TF 구성
지역경제 활성화 11.3兆 풀기로
中企제품 구매 촉진 협약도 맺어

한국전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0개 공공기관이 올해 상반기 2300여 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공공기관 간 신규 채용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11조3000억 원의 투자 예정 금액을 집행한다.

산업부는 성윤모 장관 주재로 7일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화상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공공기관별 신규 채용 준비상황 점검과 지연요인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와 조기 집행을 점검·독려해 코로나19가 미치는 국가 및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차원의 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우선 공공기관은 올해 신규 채용 규모 4160여 명 중 2300여 명을 상반기에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기관이 채용 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산업부와 공공기관 간 신규 채용 협업 TF를 운영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준비 및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하고 관계부처, 대학교 등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정된 투자금액 20조7000억 원의 현황을 점검한 후 상반기에 11조3000억 원을 집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선금 지급은 올해 집행 계획된 5003억 원 중 1분기 집행 계획인 1453억 원 대비 2411억 원 늘어난 3864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에 따라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및 지원예산 조기 집행, 조달 참여 기업 자금부담 경감, 소액 수의계약 제도 활용 및 계약대금 신속 지급 등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은 올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계획금액 10조9000억 원 중 6조4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공공기관은 방역 지침과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상반기와 연내 계획된 채용을 지연 없이 실행하고 기관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배터리 세계 1위 등극 LG화학의 '뉴비전'

"화학 넘어 과학 기반 글로벌기업 도약"

LG화학이 '화학'을 뛰어넘어 '과학'을 기반으로 혁신 성장하겠다는 뉴 비전(New Vision)을 선포했다.

LG화학은 7일 신학철 부회장과 각 사업본부 대표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라이브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비전인 'We connect science to life for a better future(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학을 인류의 삶에 연결합니다)'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10면

뉴 비전은 △모든 분야의 지식체계는 물론 지금까지 LG화학이 축적한 지식과 기술, 솔루션이라는 '과학'을 바탕으로(Science) △새로운 분야의 지식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세상에 없던 혁신을 만들고(Connect) △고객과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해나간다는(Life for a better future) 의미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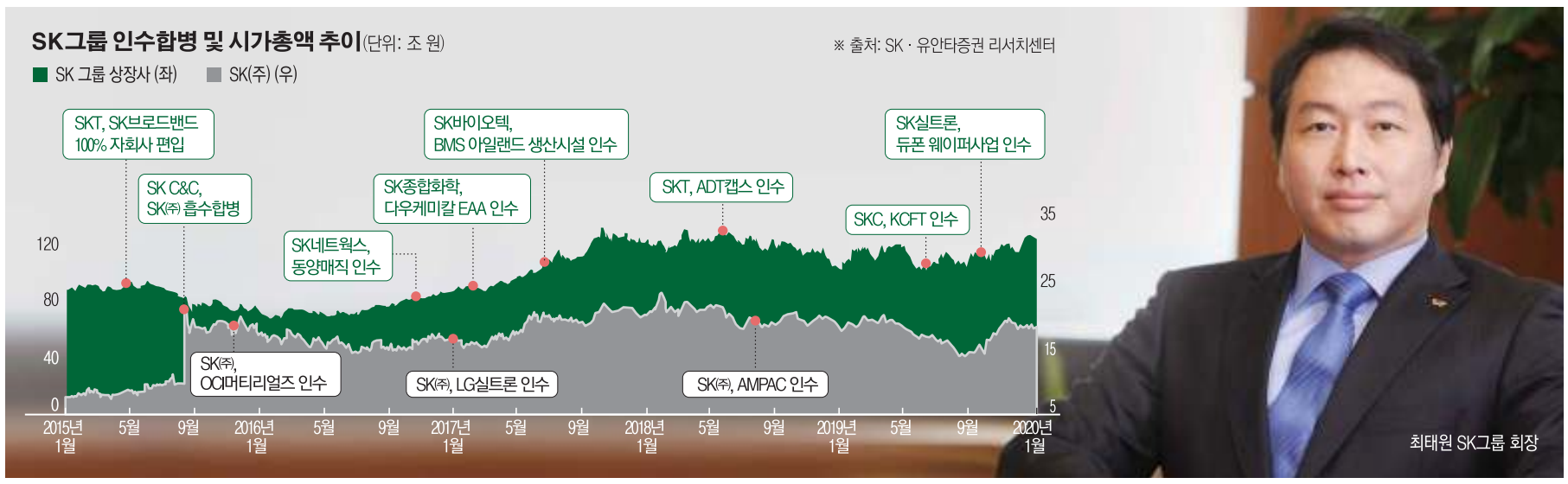
LG화학은 2006년 '차별화된 소재와 솔루션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세계적 기업'이라는 비전을 선정한 이후 14년 만에 교체했다. 신 부회장은 "새로운 비전 선포는 LG화학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새로 선정한 슬로건 'We connect science'도 발표했다. 새로운 슬로건은 과학이 인류의 삶과 연결돼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Connect'의 알파벳 'C'와 'O'를 연결해 무한대 기호(∞)를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LG화학은 올 1분기 처음으로 일본 파나소닉을 제치고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1위에 등극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에 LG화학 배터리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사용량 중 27.1%의 점유율을 기록, 그동안 1위를 유지하던 파나소닉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김유진 기자 eugene@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공격적 M&A '최태원의 뚝심'… SK 미래가치 높였다

'투자형 지주사' 전환 4년 만에 무형자산 비중 3%P 상승 유형자산 증가율의 7.7배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서든데스(Sudden Death·급사)'할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딥 체인지(Deep Change·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공격적 인수합병(M&A)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기업의 힘'으로 불리는 무형자산이 급증한 것이다.

무형자산의 힘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7년간 이어진 특허 침해 전쟁이 잘 말해 준다. 애플은 네모난 휴대전화의 '둥근 모서리' 등의 배상금으로 최대 10억 달러(약 1조 원대)까지 요구했었다.

재계와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들은 "제조업 중심에서 4차 산업으로 산업환경이 변모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바뀌고 있다. 내세울 만한 무형자산이 없으면 '덩칫값도 못한다'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서 "SK그룹의 무형자산 증가는 미래에 대한 대응력과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7일 대신증권 미래산업팀과 소재산업재팀에 따르면 SK그룹은 2015년 10.1%에 불과하던 무형자산 집중도가 2019년 말 기준으로 13.1%까지 상승했다. 무형자산과 영업권을 더한 금액은 9조7000억 원에서 17조3000억 원으로 늘어나 2015년 말 대비 무려 7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자산이 36.6%, 유형자산이 9.9%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SK그룹이 2015년 '투자형 지주회사' 체제 전환한 이후와 맞아떨어진다.

대신증권은 "2015년 투자형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기점으로 다양한 산업의 유망 기업들을 M&A하면서 무형자산 비중이 급증한 SK그룹의 성과가 인상적"이라며 "특히 2018~2019년 SK그룹의 무형자산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북미 G&P 사업 지분인수와 미국 CMO업체인 앰팩(AMPAC) 지분인수 등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SK그룹 성장사에서 M&A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이다. 1953년 선경직물로 출발할 때만 해도 섬유 전문업체에 불과했지만 잇단 대규모 M&A를 통해 국내 재계 3위(지난해 자산총액 기준) 그룹으로 성장했다.

북미 G&P·앰팩 지분인수에 2018~2019년 무형자산 급증 업계 "인수기업 가치 증대 기대"

SK하이닉스 인수는 SK그룹 M&A의 백미다. 2011년 하이닉스를 3조4267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할 당시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인수 후 최 회장은 8000억 원(2011년)에 불과하던 연구개발(R&D) 투자를 2016년 2조1000억 원으로 늘리며 기술력을 확보했다.

특히 최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2015년 이후 M&A 전략은 더 속도를 냈다. 2016년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사인 OCI머티리얼즈(현 SK머티리얼즈), 2017년에는 웨이퍼 제조사 LG실트론(현 SK실트론)까지 인수하며 반도체 사업 수직계열화를 이뤄냈다. 도시바 메모리 부문 인수 참여에도 성공하며 부족하다고 평가받던 낸드플래시 사업도 보완했다.

2018년에는 앰팩의 지분 100%를 사들였고, 지난해에는 SK실트론이 듀폰사 실리콘카바이드 사업부를, SKC가 동박 제조업체인 KCFT(현 SK넥실리스)를 인수했다.

이 외에도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 M&A로 SK그룹에 편입된 역사가 있다.

최근 들어 최 회장은 '딥 체인지'와 '서든데스'를 강조한다.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대기업도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SK그룹은 반도체, 통신 등 기존 주력사업과 함께 전기차용 배터리 같은 신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위기일 때 투자해 시장이 성장할 때 이익을 실현한다"는 최태원 회장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SK그룹이 투자한 기업들의 성과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인수기업의 가치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2015년 인수한 기업 중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 ESR 등은 주가나 실적 관점에서 인수 성과가 있었고 IPO(기업공개)가 예상되는 SK바이오팜, SK팜데코(CMO사업 통합법인) 및 북미 지역의 G&P 투자 건도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자상한 기업 13호' 스타벅스… 청년 일자리 5만 개 창출

〈자발적 상생 협력 기업〉

중기부 '창업카페' 10곳 지정 청년 네트워킹 공간 등 활용

커뮤니티스토어 수익금 적립 해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키로

박영선(왼쪽 다섯 번째) 중기부 장관이 7일 서울 스타벅스 성수역점에서 열린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 오픈 기념식에 참석, 관계사와 '즐거운 청년 스타트업 창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정수 서울창조경제혁신 센터장, 김광현 창업진흥원장, 전창열 청년창업네트워크 프리즘 대표, 송호섭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 박 장관, 이준배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스타벅스 성수역점 내부 모습.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타벅스)가 벤처캐피털(VC)에 투자해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는 펀드를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동안 스타벅스가 한국에서 1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손잡고 5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혀줬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3번째 '자상한 기업'으로 스타벅스를 선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7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스타벅스 커뮤니티 2호점에서 '즐거운 청년 스타트업 창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 장관,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 전창열 청년창업네크워크 프리즘 대표, 이준배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스타벅스를 13번째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했다. 자상한 기업은 '자발적 상생 협력 기업'의 줄임말로 대기업이 보유한 기술, 인프라,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 공유하는 중기부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스타벅스는 청년 예비 창업자들에게 스타트업 창업의 전진 기지를 제공하고 해외연수 등을 포함한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스타벅스는 '창업카페' 10개소를 지정·운영한다. 창업카페로 지정되는 매장은 스타벅스 커뮤니티스토어 2호점(성수역점), 이대R점, 더종로R점, 약수역점(이상 서울), 인천용현DT점, 천안안서점, 대구중앙로역점, 대전중앙로R점, 조선대점(광주), 더해운대R점 등 10곳이다. 중기부는 창업카페가 청년들에게 교육, 네트워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스타벅스, 프리즘, 액셀러레이터협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했다.

민간 협약 주체들(스타벅스, 프리즘, 액셀러레이터협회 등)은 청년창업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창업카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중기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상생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 촉진을 위한 기부금도 제공한다. 스타벅스 커뮤니티스토어 2호점에서 판매하는 음료, 커피 등의 수익금 일부를 적립해 창업카페에서 진행되는 교육·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스타벅스-프리즘-액셀러레이터협회 등이 협업해 발굴한 우수 청년 인재에게 스타벅스 본사 및 미국 스타트업 창업의 본고장에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셋째로 스타벅스 청년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전문 멘토링과 투자 연계를 지원한다. 창업카페로 발굴된 청년 창업자 등에게 전문 멘토링을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연결해 실제 투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는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연간 100명 내외의 재창업 희망자에 대해 별도의 전문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마련·운영하고, 매장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박 장관은 1995년 미국 특파원 시절 미국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를 방문해 취재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대학생 3명이 모여 만든 스타트업이었던 스타벅스가 25년 뒤 이제는 글로벌기업이 됐다"며 "스타벅스의 응원을 받아 청년들이 더 꿈과 희망을 갖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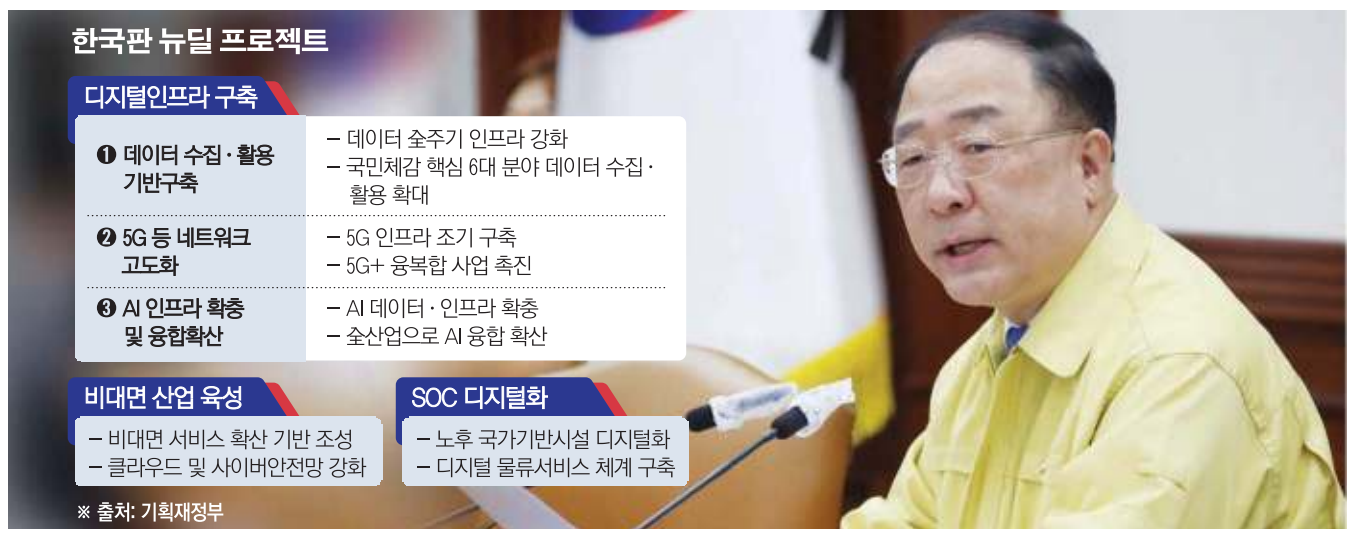
송호섭 대표는 "시애틀에 스타벅스가 1호점을 냈을 때 이렇게까지 성장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하워드 슐츠의 창업정신이 82개국에서 커피문화와 혁신을 전파한 것처럼 국내 10개 거점 매장에서 창업정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언택트' 교육·헬스케어 확대… 원격의료 빠져 '한계'

3대 프로젝트 10개 과제 선정

'토목 위주' 과거 뉴딜과 차별화
공공·금융·의료 등에 데이터 개방
AI 원격교육·모바일 헬스케어 확대
"원격의료는 법 개정 사안" 선 그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프로젝트는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다. 이 3대 프로젝트는 다시 10개 핵심 과제로 구성된다.

과제 선정 원칙은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과 차별화한 디지털 기반의 21세기 뉴딜을 추구하고 △정부 투자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되 민간사업을 구축·잠식하는 프로젝트는 지양하고 △전산업·전 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로서 경제 전반의 혁신 확산 및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분야에 투자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별 과제를 보면, 먼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차원에선 데이터 경제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공공·금융·의료 등 주요 분야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데이터 맵 구축 등 데이터 거래·유통 지원을 강화한다. 데이터·AI 펀드 조성 등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국민 체감도가 큰 6개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한다. 소상공인 데이터의 경우, 상권정보시스템에 판매 시점 정보관리(POS)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또 민간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촉진하고, 공공와이파이 등 공공 정보통신망을 확충한다. 도시·산업현장 등에선 5G+ 실감 콘텐츠를 접목하고 안전·교통 분야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하는 등 융복합 사업을 촉진한다. AI 활용 촉진을 위해 음성·행동인식, 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제조업 전반과 중소·벤처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공정을 도입하는 등 AI 데이터·인프라도 확충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 측면에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시스템을 확대한다.

단 논란이 됐던 원격의료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을 확산하는 것"이라며 "의료계나 학계, 언론에서 우려하는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하는 것"이라며 "원격진료 처방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부는 SOC 디지털화 차원에서 도로·철도 등 노후 시설물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 수집·가공·공유를 확대한다. 더불어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택배 등 물류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해 도심 인근과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김 차관은 "이 3대 분야 10대 과제는 충분히 지금까지 논의했고, 비대면이나 디지털 전환 추세를 감안할 때 집중적으로 2~3년 이내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획기적으로 진전을 이룰 만한 과제라고 생각해 선정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재정 투입 규모 등은 다음 주에 본격화할 태스크포스(TF)에서 부처들과 민간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한국판 뉴딜' 전문가 제언

"방향 공감… 실업난 해소엔 역부족
U턴 기업·비숙련 취업대책 병행을"

정부가 7일 내달 초 발표할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단기간 내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병원·교통시설 등 적절한 SOC 투자, 밸류체인 복원을 위한 기업유턴 지원책, 노후 인프라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경제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비대면·디지털 쪽 인프라를 강화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로 경기부양을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금융적 지원 외에 정부가 직접 이런 분야에 공공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될 수도 있고 휴먼뉴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 '최근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이라는 책을 펴낸 김병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장은 "통상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계획 수준도 안 된다"며 "한국판 뉴딜이 어떻게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뉴딜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조금 막막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교수는 "디지털 인프라를 만든다고 하면 주로 전문인력이나 숙련인력이 필요한데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산업이 육성돼 관련 기업들이 생겨난다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건 비숙련 노동자들인데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면 하드웨어 쪽 인프라 확충도 함께 가야 한다. 꼭 주택이 아니더라도 병원이나 어린이집,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게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강병구 교수도 "그간 SOC에 과도한 투자를 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생활 SOC에 대해 투자를 했던 것"이라며 "이번에도 SOC 투자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필요한 공공투자가 필요하면 SOC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뉴딜 방향은 그동안 추진됐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으로의 구조개편 방안을 되풀이한 것에 그친 것 같다"며 "무너진 밸류체인 복원을 위한 기업유턴 방안 등이 빠져 아쉽다"고 밝혔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정부에서 말하는 휴먼뉴딜, 디지털 뉴딜도 기후 위기 시대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한국형 뉴딜은 단기간에 효과성이 있는 노후 인프라 개선, 산업에너지 효율화,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엔지니어링 산업 디지털 역량 강화, 수출 경쟁력 높여야”

정부, 엔지니어링 혁신전략

‘산업 위의 산업’ 고부가가치 영역
국내 기업 매출 90% 내수에 의존
민관 손잡고 해외 동반 진출 모색
신남방 공략… 빅데이터 구축도

건설, 정보통신, 기계, 환경 등 다양한 기술 분야를 아울러 산업의 역량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산업 위의 산업’이라 불리지만 수주의 90%를 국내에 의존하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또한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기업이 적정한 사업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엔지니어링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2018년 엔지니어링 세계시장 규모는 1558억 달러, 기업의 자국 매출을 제외한 해외 매출은 719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수주 규모는 8조2000억 원으로 이 중 7조4000억 원이 국내 시장으로 90%가 내수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고부가 영역의 시장 창출 △신남방 지역 중심으로 수출 저변 확대 △빅데이터·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엔지니어링의 디지털화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고부가 영역인 프로젝트 관리와 통합운영 관리 분야에서 국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그 실적을 쌓아 공공기관과 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 지난해 한국공항공사가 도화엔지니어링 등 기업 3곳과 함께 3000만 달러 규모의 페루 친체로 신국제공항 프로젝트 관리 사업을 수주한 사례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함께하는 시범사업 8건을 발굴·추진하고 성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주요 권역별로 수주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여러 지역 가운데 그간 진출 실적이 많고 향후 진출 가능성이 큰 신남방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공략한다.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2021년까지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을 개발·출시하고, 2022년까지 해외 공동보증 프로그램을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로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와 공동으로 설계부터 통합운영 관리까지 엔지니어링 전주기를 통합하는 빅데이터도 구축한다. 빅데이터 구축의 핵심인 데이터는 기반시설의 설계·운전 등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과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부터 수집한다. 기존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려는 기업에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데이터 중 일부를 수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집된 데이터에 AI 기술을 더해 오류를 찾아내는 설계 검증 기술, 요구 조건을 입력하면 설계를 자동 생성하는 기술, 실시간 공정관리를 위한 기자재 추적 기술, 설비·시설물의 사고·고장 예측 기술 등을 개발해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구현한다.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적정한 사업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엔지니어링은 건설·플랜트·제조 등 많은 연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국내의 역량을 결집해 고부가가치 영역과 디지털 전환에 과감히 도전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중기 제품 구매촉진 협약 성윤모(왼쪽 네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남서울본부에서 김기문(다섯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1분위〉 〈5분위〉

가구 지출 102만원 vs 422만원

1분위, 식료품·주거비 소비 많아… 5분위는 외식·교육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이 245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 가구는 월평균 102만4000원을 지출했고, 5분위는 422만1000원을 지출했다. 1분위는 식료품과 주거비에 가장 많이 지출했고, 5분위는 외식, 교통, 교육 순으로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5만7000원이었다. 2018년 253만8000원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부터 전용 표본이 개편되고 규모도 월 1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바뀌면서 내구재 항목 지출금액이 낮게 나타난 결과로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항목별로는 음식·숙박(14.1%), 식료품·비주류음료(13.5%), 교통(12.0%), 주거·수도·광열(11.3%) 순으로 많이 썼다.

1인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42만6000원, 4인 가구는 371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항목별 비중은 1인 가구는 주거·수도·광열(17.9%)이 가장 높고 2인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16.0%)가 가장 높은 반면, 4인 가구 및 5인 이상 가구는 교육비 지출이 각각 15.8%, 15.1%로 가장 높았다.

가구주 연령 40~49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319만8000원, 60세 이상 가구 165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항목별 비중은 39세 이하 가구는 음식·숙박(16.8%), 교통(14.0%) 순으로 높고, 40~49세 가구는 교육(15.5%), 음식·숙박(14.1%) 순이며, 60세 이상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19.5%), 보건(13.9%)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02만4000원, 소득 5분위 가구는 422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항목별 비중은 소득 1분위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19.9%), 주거·수도·광열(19.5%) 순이고 소득 5분위 가구는 음식·숙박(14.2%), 교통(12.8%) 순이었다.

소득 1~2분위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 4~5분위는 교통, 교육, 오락·문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은 234만3000원으로 전년(243만 원)보다 소폭 줄었다.

통계청은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가계동향조사를 소득과 지출로 나눴던 2017~2018년에 대해서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3월 국세 6조 덜 걷혀… 작년 불황으로 법인세 급감

코로나19 따른 납세 연장 늘어
1분기 재정적자 55.3조 역대 최대
추경 집행 땐 재정건전성 악화

3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6조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법인 실적이 악화하고,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기업들이 늘어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발간한 ‘재정동향 5월호’에서 3월 총수입이 41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조7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1~3월 누계(119조9000억 원)로도 1조5000억 원 줄었다. 특히 국세수입이 급감했다. 3월 22조8000억 원으로 6조 원, 1~3월 누계로는 69조5000억 원으로 8조5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당월은 물론 누계로도 2016년 이후 최소치다. 총지출이 73.6% 증가할 동안 수입은 제자리를 맴돈 것이다.

국세수입 감소는 주로 법인세 감소에 기인했다. 법인세는 3월 13조4000억 원으로 6조 원 줄었는데,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연결기준)이 2018년 162조 원, 2019년 102조 원으로 37.0% 급감한 데 따른 결과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사업장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늘면서 납부세액 상당분이 이월됐다.

그나마 소득세는 3조2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 납부가 늘어난 덕이다. 부가가치세는 1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여기에 세외수입이 3월 4000억 원, 1~3월 누계 1조4000억 원 늘면서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총수입 감소분을 일부 보전했다. 기금수입도 3월 기준으로 4조 원, 누계로는 5조6000억 원 증가했다. 일부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사회보장성기여금 수입이 늘고,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 회수가 증가해서다.

세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총지출은 3월 60조8000억 원으로 11조8000억 원, 1~3월 누계로는 164조8000억 원으로 26조5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3월 통합재정수지는 19조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4조4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1~3월 누계 적자 폭은 각각 45조3000억 원, 55조3000억 원에 달한다. 2~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집행되면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는 더 가파르게 악화할 전망이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도 731조6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소비자 소송 지원, 주택·자동차 등 확대

공공기관 296개 규제 개선… 국가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

앞으로 소비자가 다양한 분야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시간 미만의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서 불허됐던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신산업 발전 촉진(60개), 기존 산업 활력 제고(56개), 주민생활 불편 해소(68개), 포용사회 기반 확산(22개) 등 4개 분야에서 296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중앙부처, 지자체의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 소송지원 영역이 확대된다. 3000만 원 이상 소송지원 신청 자격을 ‘의료, 금융, 보험 분야 소비자’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건의 당사자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소비자’로 바꿨다. 이에 따라 주택,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이 유연화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벤처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에게만 열려 있던 입주를 기타분류 유형을 신설해 입주를 더 수월하게 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중 2시간 이상의 시험에만 허용했던 화장실 이용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엔 2시간 미만 시험 도중에 화장실을 가면 남은 시간은 포기해야 했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만 지원했던 신용보증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며, 창업 및 컨설팅 유경험자에게만 부여됐던 창업컨설팅 전문가 자격요건은 무경험자라도 퇴직 임직원, 기술권위자, 명인 등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면 가격을 부여한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10년 뒤 도심형 에어택시 상용화… 수소·태양광으로 주택 냉난방

국토부 ‘20대 유망기술’ 확정

10년 뒤에는 도심형 에어택시가 상용화되고 공항에 20분 전에만 도착하면 탑승이 가능해진다. 주택의 냉난방과 전기는 수요연료전지와 태양광으로 자체 생산되고 인공지능(AI)이 언제나 쾌적한 온도·습도를 유지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술 확보를 위한 20대 유망기술(20-Wonder 프로젝트)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2030년이면 대한민국의 도시·인프라·주택은 AI,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IoT)과 결합된 초지능화 시설로 변모한다. 각종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기술로 혼잡을 사전에 예측해 교통신호를 전환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등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주택은 IT 기술과 결합돼 개인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지능형 주택(Smart Home)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도로와 자동차 간 정보·신호를 공유하며 운행하는 레벨 5단계 완전자율협력주행이 보편화되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MaaS)를 통한 통합결제 및 수단 간 환승 등 자유로운 이동이 일상이 된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巨與 새 원내대표에 김태년 "당정청 원팀 돼 위기 극복"

정책위 의장 거친 '친문 핵심'
민주당도 文대통령 친정체제
코로나 대응 3차 추경 첫 과제
개혁·민생 입법 등 현안 산적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에 '친문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태년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거대 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21대 국회 첫해를 이끌게 된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경쟁자인 전해철·정성호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163표 가운데 과반인 82표를 획득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다. 전해철 의원은 72표, 정성호 의원은 9표를 각각 확보했다.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한 차례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 다시 도전해 원내사령탑 자리를 꿰찼다.

김 원내대표는 이른바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출신의 중진 의원이다. 1964년 전남 순천 출생으로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경희대 재학 중 총학생회장을 맡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87년에는 현재의 지역구인 성남에서 6월 항쟁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후 성남시에서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던 중 2002년 대선에선 노무현선거대책본부 성남공동본부장을 맡으며, 정치권에 첫발을 들였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18대 총선에서 낙선했다가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두루 소통할 수 있는 '핵심 친문'으로 꼽힌다. 집권 4년 차에 친문 원내대표가 탄생한 만큼 문재인 정부 후반기 당·청 관계도 한층 끈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의 앞에는 취임과 동시에 많은 과제가 쌓여 있다.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다. 당장 정부가 다음 달 초 제출 예정인 코로나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피해 산업·업종 지원책 마련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입법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경제 위기 극복 과제를 설정하고 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는 "당·정·청 내부 토론은 치열하게, 도출된 결론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당·정·청이 '원팀'이 돼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회·권력기관 개혁 등 3년 차를 넘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전반기 원구성 협상도 중요한 당면 과제다. 원구성 협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야당과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자리다. 여기에 7월 출범이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임명 문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문제 역시 중요한 현안으로 꼽힌다.

취임 후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입법도 해결해야 할 전망이다. 본회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n번방 방지법 후속입법, 코로나19 관련 출입국관리법과 공공의대 설립법,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곧바로 야당과의 협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당장 본회의 개최를 놓고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으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게 돼 어깨가 매우 무겁다"며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김태년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축하 꽃다발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전액기부

靑 "관제기부 운운은 국민 모독"
10일 취임 3년 대국민 특별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며 "기부 방식은 수령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에게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은 2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관제기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시민들의 사례를 들며 "관제기부, 관제 금 모으기 운운하는 것은 존경스런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단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기부 의사를 밝힌 것이며, 추가 기부를 하실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4일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3년이 되는 10일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특별연설 형식으로 국민 앞에 서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남은 임기 2년 동안의 주요 국정 과제 수행과 관련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은 TV를 통해 생중계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는 국민께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하는 메시지를 담지 않을까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정운영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북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할지도 주목된다. 정일환 기자 whan@

문희상 "오늘 본회의 개의… 여야 협의해 달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의장이 "여야가 본회의 개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의장으로서 헌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헌법 130조 제1항에 따라 5월 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이 언급한 헌법개정안은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이다.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헌법 130조 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한이 9일이다.

문 의장은 "여야가 오늘 중이라도 헌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獨, 과감한 경제 재개… 위기관리 능력 빛난 메르켈

16개 주지사와 논의…재개 결정
상점 전면 영업·프로축구 개막
공장 가동률 80% 성공사례 '위상'
선진국 첫 완화 조치… 결과 주목

주요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동안 체면을 차린 유일한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치명률도 가장 낮은 데다 주요국들이 경제를 전면 봉쇄한 와중에도 독일의 공장 가동률은 80%에 달했다. 여기다 경제도 가장 먼저 과감하게 재개키로 하면서 위기 국면에서 강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운 앙겔라 메르켈의 리더십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6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 16개 주의 주총리들과 회상회의를 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골자는 접촉 제한을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완화하는 것이다. 독일은 3월 16일부터 공공시설 운영 및 종교 모임 금지, 생필품점을 제외한 일반 상점 운영 금지 조치를 한 데 이어 같은 달 23일부터는 2인 초과 접촉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800㎡ 이하 규모 상점의 경우 이미 영업을 재개한 곳도 있지만 이날 결정으로 매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점이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해야 한다. 또 휴교령도 점차 해제해 여름방학 이전까지 모든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독일 프로축구 리그 '분데스리가' 시즌도 개막한다. 분데스리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개되는 유럽의 첫 축구리그가 된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여유가 생겼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6월 5일까지 연장하고, 감염이 국지적으로 재확산할 경우 제한조치가 부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BBC는 유럽국 가운데 코로나 타격이 가장 적었던 독일이 가장 먼저 경제 재개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독일은 사망자가 7000명 미만으로 영국·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훨씬 적다. 여기에는 메르켈 총리의 '과학적 리더십'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는 3월 1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결속을 호소했다. 또 양자화학박사로서 모든 사안을 의학계와 협의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과 공유했다.

독일 공장 가동률이 80%에 달한 노하우도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은 코로나19 창궐 국면에서 이웃국들과 달리 기업에 공장 가동 선택권을 부여, 80% 이상이 공장을 계속 돌렸다.

이런 대응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의 상황이 반면교사가 됐다. 중국은 독일의 최대 교역국으로 기업들 공장 대부분이 중국에 진출해 있다. 기업들은 코로나19가 중국을 덮치자 현장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해 독일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발 빠른 대응이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막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효과를 냈다"며 "이런 독일의 저력이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도 가장 빨리 경제 회복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코로나 우려 속에 맞는 '어머니의 날' 6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최대 꽃시장에서 마스크 쓴 사람들이 '어머니의 날(10일)'을 맞아 각양각색의 꽃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 서구에서는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킨다. 현지 당국은 코로나19 국면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꽃가게와 케이크 매장 등을 닫도록 명령했지만 잘 지켜질진 미지수다. 이날 기준 중남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섰고, 멕시코에서도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멕시코시티/EPA연합뉴스

美·中 무역전쟁 재점화… 트럼프 "2주 뒤 보자"

'코로나 중국 책임론' 기폭제 역할…휴전 4개월 만에 갈등 격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 4개월 만에 재점화할 조짐이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최악의 공격"이라며 "진주만보다도, 세계무역센터보다도 더 나쁘다"고 표현했다. 코로나 사태를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2001년 9월 11일 일어난 동시 다발 테러 사건에 빗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이 같은 공격은 전혀 없었다.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중국에서 멈춰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는 원천에서 멈춰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이 중국의 불투명한 대응과 초기 확산 억제 실패에 있다는 식의 비판을 이어온 것은 물론,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날 발언도 '중국 책임론'의 연장선인 셈이다.

현재 미국 백악관과 의회 내에서는 반중(反中) 분위기가 고조, 중국으로의 공급망과 투자 흐름을 제한하려는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달 말 미국 기업이 민간용 물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에도 군용 판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 회사들이 특정 미국 상품을 중국으로 운송할 때 미국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 연기금이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국의 전력망에 사용되는 전기 장비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인다.

앞서 장장 17개월간 세계 경제를 위협하던 미·중 무역 전쟁은 1월 양측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코로나 발원지 공방'이 격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1단계 무역 합의 파기' 카드까지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폭스뉴스와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은 2500억 달러 상당의 우리 상품을 구매할 것"이라며 "그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2주 안에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 출신의 스테파니 시걸 국제전략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코로나19가 미·중 간 긴장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팬데믹 국면에서 미·중 양국은 협력과 협조 대신 서로를 탓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대중 강경 노선으로 전환해 코로나19로 잃은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변효선 기자 hsbyun@

코로나에 휘청·소송에 털썩
'엎친데 덮친' 우버·리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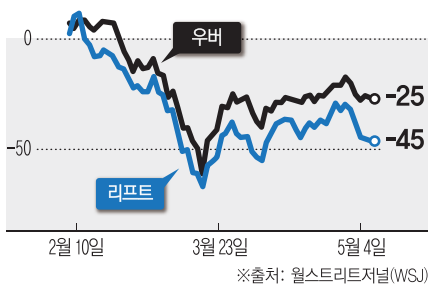
실적 침체·대량 해고 위기에
캘리포니아, 주법 위반 제소

미국 양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테크놀로지와 리프트가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버와 리프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실적 침체, 대량 해고, 여기다 집단 소송까지 겹쳐 우울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리프트가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프트는 전체 직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1000명가량을 해고할 방침이다. 월급도 일반 직원은 10%, 경영진은 20~30% 각각 삭감했다.

우버도 전체 직원의 14%에 해당하는 3700명을 감원키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연봉을 반납하기로 하는 등 2주 안에 최종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리프트는 코로나19 여파에도 1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성적을 올렸지만,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조치의 영향이 3월 중순부터 본격화했기 때문에 2분기에는 리프트와 우버 모두 실적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버와 리프트는 집단소송에도 직면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5일 양사가 운전기사를 '독립계약 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법을 위반했다며 양사를 제소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법은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방식을 통제하거나 업무가 회사 주요 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근로자들을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대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우버와 리프트의 사업모델 핵심인 '긱이코노미(임시직과 계약직 중심의 경제)'를 흔들 수 있는 것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中에 날 세운 美
EU엔 화해 손짓

USTR, 항공사 보조금 자진 폐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론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재개하고 있는 미국이 유럽연합(EU)에는 화해 제스처를 보내 눈길을 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 낸 문서에서 보잉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폐지 사실을 통보하면서 EU에 대미 보복관세 철회를 요청했다.

해당 문서는 "미국 워싱턴주가 보잉에 제공했던 세제 혜택이 USTR의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폐지됐다"며 "이에 EU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USTR는 이 문서에 대해 세계 양대 항공기 생산업체인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의 보조금을 둘러싼 오랜 갈등과 관련, EU가 요구하는 연간 약 100억 달러(약 12조 2760억 원)의 보복관세 발동을 무효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보잉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는 16년 전 세제 혜택을 처음 도입했다. 보잉은 2018년 세제 혜택으로 1억18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잉은 2월 워싱턴주 주의회에 세제우대 철회를 신청했으며 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3월 정식으로 폐지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로써 미국은 WTO의 권고사항을 완전히 이행, 분쟁을 종결하고 있다"며 "이것은 EU가 어떠한 미국 제품에 대해서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EU는 2004년부터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의 위법성을 놓고 각각 WTO에 제소하는 등 오랜 분쟁을 벌여왔다. WTO는 이미 두 회사에 대한 거액의 보조금은 불법이라고 판단, 지난해 10월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을 이유로 항공기와 와인, 치즈 등 유럽 제품에 대해 미국이 75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했다. WTO는 EU에 대해서도 대미 보복관세를 인정할 예정이지만, EU 내에서는 보잉과 에어버스를 둘러싼 해묵은 분쟁을 끝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중국과 제2 무역전쟁의 시동을 걸면서 다른 국가, 지역과는 무역 분쟁을 최대한 억제하고 중국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오뚜기 창립 51주년

우뚝서자, 오뚜기민족!

우리 민족에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힘을 모아 결국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정신을 발휘해 왔습니다

바이러스의 최전선에서 밤낮없이 땀 흘리는
의료진,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부터
서로를 다독이며 잘 이겨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까지
모두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굴해본 적 없는
우리는 오뚜기민족
이제, 다시 우뚝 일어섭시다
우리 민족은 해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오뚜기

오뚜기는 대한민국 영웅을 응원합니다

방역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

밤낮없이 달려가는 일선 공무원

이웃을 위해 나선 자원봉사자

세계 방역의 모범이 된 국민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 첫 월간 흑자… 인뱅·증권 등 사업 다각화 착수

작년 순매출 1187억 3년간 35배↑
모바일 금융 주도권 확보 가속도
이승건 대표 "이익 성장궤도 진입"

토스가 서비스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첫 월간 흑자를 달성했다. 토스 플랫폼을 통해 확보한 수익은 내년 출범을 앞둔 인터넷은행(토스뱅크) 등 사업 다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달 첫 월간 흑자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토스는 2016년 34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187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 3년간 약 35배 성장했다.

영업수익의 83%가 제휴 금융기관 및 온라인 사업자 등 B2B 기반으로 발생했다. 토스는 자체 플랫폼의 본격 성장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증권, PG사업 진출로 모바일 금융 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주도권을 잡을 계획이다. 이 분야에서 토스가 추정하는 전체 시장 규모는 52조 원이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는 간편송금으로 시작해 현재는 40개가 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앱'으로 진화했고, 금융회사와 사용자를 잇는 모바일 지점 역할을 통해 각 금융 회사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채널로 자리매김했다"며 "국내 금융 산업은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 올해를 기점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추세에 따라 토스도 본격 이익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토스 플랫폼을 통해 확보한 수익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증권, PG사업의 성장을 지원해 새로운 금융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토스의 비전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토스와 같은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은 매출이 확대되더라도 추가 비용 증가가 거의 없다. 때문에 손익 분기점 이후 매출이 대부분 순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인당 저축액과 신용카드 수, 납입 보험료 등에서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지만, 대부분 인적 오프라인 중개를 통하고 있어 모바일 플랫폼의 사업 기회가 매우 크다.

토스의 외형 확대는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현재 토스를 통한 월간 송금액은 4조5000억 원, 누적 송금액은 90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송금 건수 기준으로 국내 전 금융권을 통틀어 온라인 거래의 9.2%를 차지했다.

송금 서비스 외에도 대출추천 및 비교 서비스, 카드발급, 결제, 보험 등 주요 서비스 수익 비중이 각각 10~25% 수준이다. 서비스 초기 20대에 집중된 가입자 연령대는 최근 40대 이상 가입자 비중이 37%까지 확대됐다.

조직 규모도 지난해 180명에서 현재 400여 명으로 늘었다. 토스를 포함한 전 계열사에서 수백 명 규모의 공격적인 채용을 진행 중이다. 현재 토스의 회원 수는 국내 전체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1700만 명에 달한다.

김범근 기자 nova@

은행 中企 대출 8.4兆 증가 '사상 최대'

소상공인 금융 지원 본격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61%

지난달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7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463조9291억 원으로 전월보다 8조4379억 원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달 소상공인 대출이 많이 늘어난 영향 탓이다.

시중은행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3000만 원까지 연 1.5%로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이다.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이 지난달 5조1219억 원이나 급증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8조4379억 원)의 61%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분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가 중소기업 대출 증가를 주도했다.

소상공인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이기에 소상공인에게 나간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잡힌다. 4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폭 역시 2015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3월 증가폭도 2조7755억 원으로 상당했지만 4월 증가폭은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더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 증가세도 계속 이어졌다.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지난달 5조8052억 원 늘었다. 이는 3월(8조949억 원)을 제외하면 2015년 9월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합친 전체 기업대출은 지난달 14조2432억 원 늘어 전월(13조4568억 원)에 이어 사상 최대 증가액을 경신했다.

한편,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24조6476억 원으로 전월보다 4조6595억 원 늘었다. 3월 급증세(6조6801억 원)에서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5905억 원, 개인신용대출이 4975억 원 각각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월(4조6088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신용대출 증가액은 3월(2조2408억 원) 대비 크게 줄었다.

김범근 기자 nova@

국민銀, 주한미군 韓근로자 생활자금 지원

KB국민은행은 11일부터 한미 방위분담금특별협정(SMA)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 위해 저금리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중 무급휴직 중인 자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최저 연 2.70%다.

대출 기간은 일시 상환방식 1년(최장 10년 이내 연장가능), 분할상환 방식 1년 이상 3년 이내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무급휴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기업銀, 비대면 퇴직연금 설명회

IBK기업은행은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확대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변화된 업무환경을 반영해 '퇴직연금 비대면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설명회에 참여하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 또는 가입 희망기업 근로자는 모바일 앱이나 PC 등을 통해 퇴직연금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제도 안내,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실시간 질의 응답도 가능하다. 재택·유연근무 시행 기업, 해외에 사업장을 둔 기업도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어 퇴직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설명회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늘고 있어 추후 자산관리 분야 등으로 서비스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DOUZONE 더존비즈온
www.wehago.com

대한민국 기업을 위하고! 원격근무 성공을 위하고!
재택근무 통합패키지 무상제공

- 본 서비스는 ICT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기간: 2020. 06. 30까지)
-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의 소통과 협업에 특화된 12가지 서비스만 선별하여 업무 단절이나 보안 문제 없이 효율적인 원격근무 통합패키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 WEHAGO 홈페이지(www.wehago.com)에서 신청하시고, 회원가입 후에는 바로 업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빈틈없는 재택근무를 위한
12가지 무상제공 서비스

원격접속, 화상회의는 물론 심지어 팩스,
문자서비스(세종텔레콤 협력)까지 무료로!
한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업무환경을
12가지 서비스가 그대로 구현해줍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3가지 언어를 지원합니다.

내 PC 원격접속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의 서버 또는 PC에 접속하여 원격 화면을 보며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원격 PC의 자료를 관리합니다.

채팅&메신저(WE톡)
조직과 업무 단위로 그룹 대화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와 파일을 공유하고, 쪽지, 화상회의, 투표, 일정 공유, 웹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전용 메신저입니다.

화상회의
국내와 해외 어떤 지역이라도 PC와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화면과 문서를 공유하며 다자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서비스
거래처, 연락처와 연계되어 고객 및 거래처 그룹을 관리하고 대량 일괄발송 등 문자 기반의 다양한 마케팅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팩스
팩스기기 없어도 인터넷 팩스를 통해 수신되는 팩스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발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메일(1G)
개인 메일은 물론, 회사 메일까지 통합 관리하고, 간편하게 회사의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전용 메일 서비스입니다.

전자결재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결재 양식을 제공하고, 모바일과 PC를 통해 비대면 보고가 가능하며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웹오피스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등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는 웹 기반 오피스입니다. 이제 설치해서 쓰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E드라이브(10G)
회사 내 파일과 문서를 동료들과 쉽게 공유하고 검색하며, 웹 오피스를 통해 편집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업용 파일저장소입니다.

일정관리
일정 초대와 공유캘린더를 통해 동료들과 업무 일정을 공유하고, 일정과 관련된 위치, 자료, 태그, 참석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협업합니다.

할일관리
해야 할 업무, 진행 중인 업무, 종료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자는 지시한 업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기본정보관리
조직도를 통한 직원검색, 수많은 거래처, 연락처의 통합관리 및 자동업데이트/공유, 다양한 타입의 회사게시판 등 기본정보 관리 기능이 제공됩니다.

"車 기다리다 혜택 못받아…개소세 인하 연장을"

최대 143만원 인하 6월말 종료
코로나19 여파 신차 4개월 밀려
출고일 기준 혜택 못 받을 수도
"소비자 형평성 차원 배려 필요"

승용차 가격을 최대 143만 원 낮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달 말 끝난다. 주요 인기 차종의 출고 대기 기간이 길어져 충분한 소비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7일 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침체가 우려되자 3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개소세 최대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 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신차 가격이 최대 143만 원 인하됐다.

차 업계는 자체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정부의 결정에 호응했지만, 개소세 인하 혜택이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 기준으로 주어지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기간 내에 차를 구매해도 완성차가 제작돼 소비자에게 건네지는 시점이 늦어지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판매 대리점에 따르면 현시점을 기준으로 주요 인기 차종은 계약 후 출고까지 최소 두 달이 걸린다.

세부 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인 출고 대기 기간은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4개월, 더 뉴 그랜저는 3개월에 달한다. 3월 말 출시된 신형 제네시스 G80은 올해 안에 출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출시된 신차에 수요가 몰렸고, 완성차 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조달 문제와 일시 휴업 사태로 공장 가동에 차질을 겪은 결과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생산 계획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한 노사합의가 있어 생산을 탄력적으로 늘리기도 어렵다.

차 업계는 개소세 인하 효과가 나타난 만큼, 제도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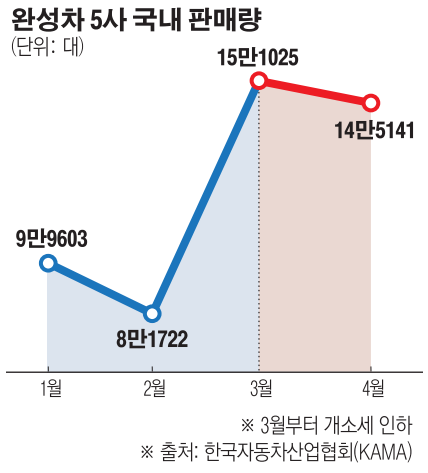
지난달 국내 완성차 5사의 해외 판매는 전년 대비 62% 이상 급감했지만, 국내 판매는 되레 6.4%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차 판매량도 26%나 급증했다. 신차 출시가 집중되는 시점에 개소세 인하와 차 업계의 공격적 마케팅이 더해진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은 국회의 입법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다. 차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추가 조치를 건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국회가 20대에서 21대로 넘어가는 시기라 의견을 전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과 대기기간 장기화를 예상치 못하고 계약한 고객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소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5개 완성차 업체의 4월 국내 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6.5% 증가했다. 현대차(-0.5%)와 쌍용차(-41.4%)를 제외한 3개사의 판매가 늘었다. 4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도 3월(2만304대)보다 13% 증가한 2만2945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8219대)과 비교하면 25.9% 증가한 규모다.

유창욱 기자 woogi@

완성차 5사 국내 판매량
(단위: 대)



※ 3월부터 개소세 인하
※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블랙' 휠·그릴 장착 모하비 그래비티 출시

기아차는 7일 모하비의 디자인 차별화 모델 '그래비티'〈사진〉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이번에 추가된 그래비티는 기존 최상위 트림 '마스터즈'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를 추가해 실내외 고급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프런트 그릴을 새 디자인으로 바꿨고, 블랙 도장 20인치 휠을 기본으로 장착해 강인하고 당당한 이미지를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실내는 스티어링 휠, 센터 콘솔(운전석과 동승석 사이에 있는 수납공간), 1·2열 도어 암레스트 및 도어 센터 트림(문쪽 팔걸이 및 문 안쪽 부분)에 부드럽고 내구성이 좋은 고급 소재 '알칸타라'를 입혔다. 동승석 크래시 패드에만 사용했던 무드 램프를 1열 양쪽 도어 트림까지 확장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그래비티 모델의 가격은 5인승 5547만 원, 6인승 5652만 원, 7인승 5612만 원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국산 동급 중 유일하게 V6 3.0 디젤 엔진을 적용해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모하비는 국내 대형 SUV 시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강인함과 고급스러움을 더한 그래비티 모델로 대형 SUV 팬들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대한항공 국제선 다음달 일부 재개

인천공항에 멈춰선 대한항공 여객기.

미주·유럽·동남아 등
13개→32개 노선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90% 이상의 국제선 운항을 중단했던 대한항공이 미주, 유럽, 동남아 등 일부 노선의 운항을 재개한다.

대한항공은 내달 1일부터 총 110개 국제선 노선 중 32개 노선을 운항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평시 대비 국제선 좌석 공급량의 20% 수준이다. 현재는 13개의 국제선 노선(주간 55회)을 운항 중이다.

미주 노선은 미국 워싱턴,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노선의 운항을 재개한다. 샌프란시스코(주 3회→5회), 애틀랜타(4회→5회), 시카고(3회→5회) 노선은 운항 횟수를 늘린다.

유럽은 암스테르담과 프랑크푸르트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파리와 런던 노선의 운항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동남아도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미얀마 양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푸둥, 광저우, 칭다오, 몽골 울란바토르 등의 노선에 비행기를 다시 띄우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여객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중국, 몽골 등은 국가별 항공편 운항 또는 입국 제한 사항 변동에 따라 예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LG 벨벳' 온라인 패션쇼서 첫선

LG전자는 7일 온라인 패션쇼를 통해 전략 스마트폰 'LG 벨벳 론칭' 행사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한다는 취지다. 벨벳은 '물방울 카메라', '3D 아크 디자인' 등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구현했다. LG전자는 고객이 벨벳을 구매해 24개월간 사용한 후, 제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출고가의 최대 50%를 할인해 주는 '고객 혜택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이동통신 3사와 자급제 채널을 통해 출시된다.

사진제공 LG전자

한화그룹이 '클린업 메콩 캠페인'을 통해 베트남에 기증한 수상 쓰레기 수거용 태양광 보트.

항공업계 "여객기에 화물 적재" 규제 완화 요청

항공운송협, 각국 정부에 권고
국토부 "한시 허용 적극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쌓여만 가는 항공 화물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각 국 정부들의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도 해당되는 얘기로 국내 항공사들은 정부와 화물 운송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 중이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최근 "엄청나게 쌓여만 가는 항공 화물 운송을 위해 각국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완화, 항공사들의 화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요 20개국(G20) 역시 최근 긴급회의에서 "무역 및 글로벌 공급망 중단을 최소화하고 항공 물류망을 효율적으로 개방하는 등 항공 운송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IATA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여객 수요는 급감한 반면 전자상거래 수요가 25~30% 증가해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객기를 띄워야 화물칸에도 함께 화물을 실어날을 수 있지만, 현재 90% 이상의 비행기가 멈춰서 있어 화물기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중국, 일본 등은 여객기 화물칸은 물론 승객 좌석 등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넘쳐나는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방염 포장 필수'라는 규제로 여객기의 경우 화물칸에만 화물을 실어나를 수 있으며 좌석, 오버헤드빈(짐칸) 등은 활용할 수 없다. 방염 박스는 현실적으로 구하기 힘들 뿐 아니라 종이박스는 허용되지 않아 사실상 화물칸을 제외한 기내에는 그 어떤 화물도 넣을 수 없다는 의미다.

물론 화물칸에만 화물을 실어 비행기를 띄울 수는 있다. 하지만 승객의 운임 수익으로 상쇄됐던 승무원 수당, 이착륙 시 영공 통과료, 공항시설 이용료, 기름값 등을 감당하기에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에 항공사들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일시적 규제 완화 등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필요시 탑재 화물의 방염포장 요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현대重, 대형 유조선 2척 계약 1500억 규모…추가 수주 기대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유럽 소재 선주사와 15만8000톤급 대형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500억 원이다. 이번 계약에는 2척의 옵션계약이 포함돼 있어,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274m, 너비 48m, 높이 23.2m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2년 1월부터 선주사에 차례대로 인도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974년 우리나라 최초 초대형 원유운반선인 애틀랜틱 배런호를 포함해 지금까지 1600척 이상의 탱커(원유운반선, PC선 등)를 건조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한화 '클린업 메콩' 캠페인 세계 3대 뉴욕광고제 금상

한화그룹은 베트남 메콩 강 유역에서 진행한 환경보호 캠페인 '클린업 메콩'이 뉴욕페스티벌 광고제에서 '친환경 PR' 부문 금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출품한 국내 기업 중 유일한 금상 수상작이다. 뉴욕페스티벌은 미국의 클리오 광고제, 프랑스 칸 광고제와 더불어 세계 3대 광고제로 꼽힌다.

이 밖에도 '창의적 마케팅 전략·효율성', '사회적·환경적 제품 브랜드 PR', '기업 이미지 PR', '제품 디자인 혁신', '옥외 매체' 등 총 5개 부문에서도 동상을 받으며 올해 한국 기업 중 최다 부문 수상도 함께 기록했다.

'클린업 메콩'이란 한화그룹이 글로벌 전진기지인 베트남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캠페인이다.

한화는 지난해 6월 한화큐셀의 태양광 패널로 작동하는 수상 쓰레기 수거 보트 2척을 제작해 베트남 빈롱시에 기증했다. 이 보트는 한화큐셀의 고성능 태양광 모듈을 장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컨베이어 장치를 달아 부유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보트 두 대가 매일 400~500㎏의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LG화학 "전혀 다른 분야와 융합, 새로운 가치 창출"

14년 만에 '뉴 비전' 선포
석유화학 중심 사업구조 탈피
전지·소재·바이오 '혁신' 의지
'과학과의 연결'을 핵심가치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7일 디지털생중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학을 인류의 삶에 연결합니다'라는 내용의 LG화학 새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사업모델을 진화시키고 전혀 다른 분야와 융합해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만들어갈 시점이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의 발언처럼 LG화학이 14년 만에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배경에는 혁신의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

전통적 석유화학 기업으로서 LG화학은 전지, 첨단소재, 바이오까지 사업을 확장해 왔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의 흐름 속에서 본격적으로 화학을 뛰어넘는 기술 기반의 혁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기준으로 LG화학이 올해 1분기 왕좌를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자, 회사로선 석유화학 사업을 기준으로 수립한 기존 비전에 대한 수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LG화학이 발표한 'We connect science to life for a better future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학을 인류의 삶에 연결합니다)'라는 비전은 과거 석유화학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탈피해 현재 성장축으로 자리 잡은 전지, 첨단소재, 생명과학 부문도 포함된 성장 목표를 아우르고 있다. 또한,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hyper-intelligence)을 경험한 고객이 회사에 기대하는 가치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LG화학의 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계획과도 궤를 같이한다. LG화학은 2024년 매출 목표를 59조 원으로 설정하고,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30%대로 낮추는 대신 전지 사업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LG화학은 '화학'을 뛰어넘어 '과학'을 기반으로 혁신 성장한다는 비전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석유화학부문은 이산화탄소 저감,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지속가능성 트렌드에 맞춰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공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지부문은 글로벌 자동차업체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사업운영 역량을 높이고 공동연구를 확대해 고성능 배터리를 개발하는 등 e-모빌리티 혁신을 추진한다.

첨단소재부문은 양극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배터리 소재 사업 발굴을 위해 글로벌 소재 업체와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생명과학부문은 AI를 활용한 신약 타깃 발굴 및 알고리즘 개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LG화학은 뉴 비전 선포에 맞춰 사업 전반에 걸쳐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 '과학과의 연결'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다른 분야와 적극적으로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비전과 핵심가치가 실제 조직 운영과 연계될 수 있도록 리더십 육성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채용과 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신 부회장은 "시스템 개선 등이 함께 따라야 한다"며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뿐만 아니라 생산, 구매, 영업 등 다양한 직군별로 프로덕션 사이언티스트(Production Scientist), 세일즈 사이언티스트(Sales Scientist)와 같이 구성원 모두 '과학과의 연결'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BELLEVILLE
1766.1535

포스코, 건축용 철강재 사업 강화

자동차 강판 수요 부진 대안
"10년 안에 판매량 3배 확대"
포스코건설 등 계열사 협업

"건물 자체가 커다란 건축용 철강재 종합전시관입니다."

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건축 홍보관 포스코 더샵갤러리. 지상 3층 연면적 4966㎡(약 1500평) 규모의 건물은 건설 당시 이노빌트 등 총 760톤(t)의 프리미엄 철강재가 사용됐다. 더샵갤러리에는 분양관뿐만 아니라 고성능 가드레일 등 이노빌트 전시공간도 있다.

이노빌트는 작년 11월 포스코가 선보인 강건재 통합 브랜드다. 건축물, 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는 강건재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은 만큼, 포스코는 고객사들이 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브랜드를 출범했다.

황민호 포스코 강건재솔루션그룹장은 "(더샵갤러리에는) 이노빌트 생태계가 적용됐다"며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더샵갤러리에 다양한 강건재가 사용됐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강판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포스코는 위기 극복을 위해 강건재 등 건축용 철강재 사업을 강화한다.

실제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연간 150조 원을 유지하고 있다. 노후 건축물 증가로 리모델링 신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산업별 강재 수요에서 건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6%다. 자동차(18%), 조선(14%)보다 높다.

김상균 포스코 강건재마케팅실장 상무는 "한 해 약 400만t의 강건재를 팔고 있다"며 "2030년까지 국내외 시장에서 현재 판매량의 3배 이상인 1400만t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목표 달성을 위해 그룹사별로 강건재 분야를 특화하고 협업을 이어간다.

포스코건설은 제품이 적용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종합건설 자재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문시공사업을 확대한다. 포스코강판은 철강 내외장재 시공사업에 특화할 계획이다. 또 강건재 공급사슬 강화 차원에서 중소 규모의 제작사·시공사를 강소기업으로 육성한다.

올해 7월과 10월에 각각 열리는 국대 최대 건축박람회 코리아빌드와 포스코글로벌EVI 포럼에 이노빌트 전시관을 마련하는 등 마케팅도 강화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대우조선, 차세대 함정용 전기 추진 체계 개발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최초로 차세대 첨단함정에 적용 가능한 전기추진체계 개발을 완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차세대 첨단함정에 전기추진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사전 연구를 완료하고 한국전기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선급 등 연구에 참여한 협력 기관과 함께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기추진체계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첨단함정인 차기구축함(KDDX)과 대형수송함-II(LPX-II) 등에 적용된다. 특히 차기구축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첫 번째 스마트 구축함으로 올해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기추진체계는 기계식 추진 장치 없이 전기로만 함정을 추진해 수중방사소음을 최대한 제한할 수 있어 대잠수함 작전에서 생존성 확보에 유리하다. 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대용량의 전기를 소모하는 레일건 등 미래 무기체계와 자동화·무인화·네트워크화를 위한 ICT 체계를 스마트 함정에 적용하는 데 유리하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 발표에는 전기추진체계 적용을 위한 최적 설계방안 및 위험요소 관리방안과 성능 확인을 위한 육상시험설비 구축방안 및 국산화율 향상 방안 등 전기추진체계를 차세대 첨단함정에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분야의 연구성과가 포함돼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신한이 희망으로 같이가게를 오픈합니다

신한금융그룹 X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프로젝트
'가치삽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신한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을 잡고
'가치삽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를
오는 6월 온라인에서 오픈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소상공인들과 함께
대한민국 모두의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가도록
계속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Hope.
Together.

신한금융그룹 중소벤처기업부

※상기 사이트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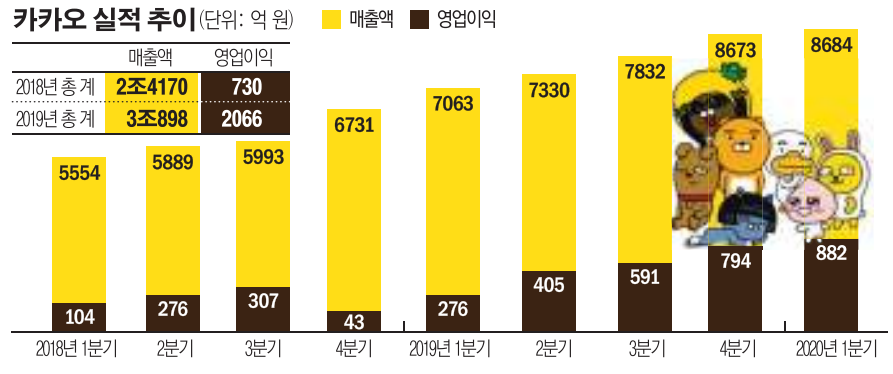
가치삽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 신한금융그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힘을 모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을 시범 선정해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온라인 창업 교육부터 홍보까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가이드 영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희망으로 같이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가치삽시다'와 함께합니다 (v.dongbanmall.com)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신한AI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카카오, 1분기 역대 최고 실적… 비대면 수혜 '톡톡'

매출 23% 늘어난 8684억… 영업익은 219% 성장한 882억
톡비즈·카카오페이 등 신사업, 콘텐츠 부문이 호실적 견인
하반기 기업용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 출시… B2B 강화



카카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비대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9% 늘어난 882억 원을 기록해 역대 분기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매출액은 86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성장했다.

커머스를 포함한 톡비즈와 카카오페이 등 신사업, 콘텐츠 부문이 호실적을 이끌었다.

1분기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4418억 원을 기록했다. 톡비즈 매출은 신규 광고주 확대와 커머스의 견조한 성장으로 77% 증가한 2247억 원이다. 선물하기, 톡스토어, 메이커스 등 카카오커머스의 1분기 전체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 늘었다. 포털비즈 매출은 계절적 비수기와 코로나19로 인한 대형 브랜드 광고주의 광고 집행 수요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8% 감소한 1166억 원을 기록했다. 신사업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1005억 원으로 집계됐다.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카카오T 블루'의 가맹 사업 확대와 카카오페이 거래액 증가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8% 증가한 4266억 원이다. 유료 콘텐츠 매출은 지난해 4분기 카카오재팬 회계 기준 변경에 대한 기저효과로 전 분기 대비 97% 상승했고, 글로벌 거래액 확대에 따른 가파른 매출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로는 30% 성장한 97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유료 콘텐츠 부문의 글로벌 플랫폼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성장했다. 특히 픽코마는 매 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유료 콘텐츠 부문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게임 콘텐츠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성장한 968억 원을 기록했다. 뮤직 콘텐츠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1507억 원을 달성했다. IP 비즈니스 기타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819억 원을 기록했다.

1분기 영업 비용은 15% 늘어난 7802억 원으로, 연결 종속회사 편입으로 인한 인원 증가가 영향을 줬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9% 성장한 882억 원이며, 영업이익률은 10.2%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과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이날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카카오톡을 통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2월 말 기준 카카오톡 이용 시간이 주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보이스톡과 페이스톡, 그룹콜 이용시간이 증가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여 대표는 "톡보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광고주 마케팅 수요는 감소했지만 효율을 증시하는 광고주는 증가했다"며 "톡보드 집행 광고주는 5400개 이상이며 3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와 모빌리티의 성장도 눈에 띈다. 카카오페이는 1분기 거래액 14조 3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성장했다. 카카오페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거래액과 증권 계좌 이용자를 기반으로 새로운 투자습관을 만들며 증권 영역으로 확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모빌리티 분야는 카카오T블루를 통해 연말까지 운행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자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통해 B2B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영역에도 진출한다. 이를 위해 기업용 종합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를 출시하고 카카오의 기술력을 통해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한다.

여 대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원격근무 등 유연한 업무환경이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 카카오워크를 출시해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기업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넷플릭스 등에 '망 안정성' 의무 부과 길 열리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0대 국회 상임위 통과
"해외에 본사 있어 제재 강제하기 어렵다" 무용론도
국내 통신사-글로벌 CP 법정소송전 치열해질 듯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대 국회에서 글로벌 CP의 횡포를 막는 법안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반면 본사가 대부분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 실제 해당 CP에 벌금이나 제재를 강제하기 어려워 무용론도 나온다. 결국 국내법과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법이 대치할 경우 글로벌 CP의 횡포를 막을 방법은 법정소송뿐이라는 과제가 남겨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글로벌 CP의 망 안정성 유지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내용 중 글로벌 CP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의무 등을 제외하기로 해 법사위에는 수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과방위는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통과시켰다. n번방 방지법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했다. 또한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역외규정'도 담겼다. 물론 본사가 외국에 있을 경우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국제사법 공조 등의 과제 역시 남았다.

한편 글로벌 CP사의 횡포를 막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구글 등이 현재 국내 통신사와 벌이는 법정 소송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사와 IT기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상황인 데다,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CP사의 인터넷망 통신료 부과 등이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국회 등에 아예 국내는 물론 글로벌 CP사 등에 부과하는 망 이용료 부과를 철폐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재훈 기자 yes@

이근주(왼쪽부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장, 김유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혁신성장본부장, 조두일 이마트24 부사장이 7일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소진공,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나서

이마트24·간편결제진흥원과 MOU… 제로페이 활성화 협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7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이마트24,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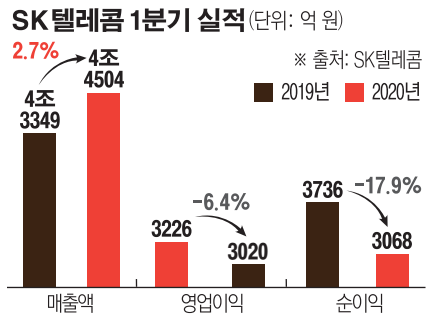
소진공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이 비대면 소비환경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과 이마트24는 코로나19로 경영애로글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기금을 마련해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접촉식 결제가 확대됨에 따라, 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로페이' 결제 활성화 홍보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함께 유도할 계획이다.

이마트24는 7월까지 전국 4700여 매장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1%를 공단으로 기부하고, 한국 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다원 기자 leedw@

SKT, 1분기 매출 선방… 5G 투자로 영업익 '주춤'

매출 4조4504억… 2.7% 증가
영업익은 6.4% 줄어든 3020억
"투자 효율화 하반기 턴어라운드"



SK텔레콤이 1분기 매출은 선방했지만 수익성은 뒷걸음쳤다. 코로나19 타격에도 선방했다는 평가 속에 SK텔레콤은 투자 효율화로 하반기 턴어라운드에 나선다는 목표다.

7일 SK텔레콤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1분기 매출 4조4504억 원, 영업이익 3020억 원, 순이익 3068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5G 가입자 증가와 신사업 부문 성장으로 2.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G 주파수 비용을 포함한 5G 네트워크 투자 비용 등으로 6.4%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영향 등으로 17.9% 줄었다.

1분기 수익성 악화에 대해 SK텔레콤은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했지만, 투자 효율화로 하반기 턴어라운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 사업인 이동통신 부문(MNO)의 실적 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지난해 5G 서비스 시작과 함께 설비와 마케팅 비용 투자가 진행됐다"며 "5G 가입자 증가가 관건인데,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설비투자(CAPEX·캐펙스)에 대해선 "연간 캐펙스 계획은 상반기 조기 집행을 고려하고 있지만, 총액 증액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당정책에 대해선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화한 구조에서 고정형 현금배당이 최적인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현재 자사주 매입, 자회사 실적 연계 등 모든 가능성을 놓고 배당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의 콘텐츠 확보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연간 6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2023년까지 총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이통3사 'LG 벨벳' 사전예약 시작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는 8일부터 14일까지 'LG 벨벳' 스마트폰 예약판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LG 벨벳은 세련된 후면 디자인과 프리미엄 카메라 기능이 강점인 모델로 출고가는 89만9800원이다.

SK텔레콤 T다이렉트숍에서 LG 벨벳을 예약 구매한 모든 고객은 △올케어 휴대용 소독기 △Klug 미니 마사지기 △알로 차량용 공기청정기 △QCY T5 블루투스 이어셋 가운데 1종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제조사 예약 프로모션을 통해 LG 미니 공기청정기, 캐릭터 액세서리 팩, 스마트폰용 짐벌 중 하나를 무료로 수령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사전 예약기간 자사 매장이나 공식 온라인몰 U+숍에서 LG 벨벳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LG생활건강 뷰티라이프스타일 편집숍인 네이처컬렉션과 더페이스샵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5000원 할인쿠폰과 색조 제품 50% 할인권을 기본 지급한다.

KT는 LG 벨벳에 맞는 요금제를 선보인다. 슈퍼플랜 플러스 요금제는 △베이직 플러스(월 9만 원) △스페셜 플러스(11만 원) △프리미엄 플러스(13만 원) 3종이다. 슈퍼플랜 플러스 3종은 5G 데이터를 완전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며, '시즌 초이스'를 요금제 혜택으로 무료 제공한다.

김우람 기자 hura@

서울지역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 모두 사용 가능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중앙정부가 결정하지만 사용처는 각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상이하다. 대기업이나 자영업자라도 연매출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당초 사용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서 지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했던 매장이라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앞선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사용처에 대한 혼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정리했다.

직영점은 사용 못한다 X

서울시의 경우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직영과 가맹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 가맹점 없이 직영점으로만 운영되는 외식업체에서도 일부 사용 가능하다. 스타벅스는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지만, 서울시에 위치한 점포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이용 가능하다. 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역시 서울시에서는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이 외의 지역은 가맹점일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일부지역 홈플러스 사용 가능 O

당초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 등 대기업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서울 지역에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경기 지역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홈플러스에 입점한 식당, 옷가게 등 소상공인 업체에 국한한다. 홈플러스에서 서울시 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시스템상 오류 때문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결제 시스템은 선불카드를 자체 상품권과 다른 카드로 인식해 사용할 수 없지만, 홈플러스는 자체 상품권으로 인식되면서 결제가 되고 있다는 것.

온라인몰 사용 불가 X

선불카드로 받는 경우 온라인몰 사용이 가능한 지자체가 있다. 지자체에서 지급받은 선불카드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에서는 쿠팡, 11번가, 지마켓 등 온라인몰 결제가 가능하다. 단 직매입 상품이 아닌 오픈마켓 입점업체(자영업자)에서만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또 입점 자영업자의 사업자등록이 서울인 경우 서울시 선불카드 이용이 가능하고, 경기도에 사업자가 등록돼 있다면 서울시민은 사용이 제한된다.

다이소에선 사용할 수 있다 O

다이소는 직영점이 전체의 3분의 2, 가맹점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신한카드 한정)로 받았을 경우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이소는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확인이 어렵지만 연매출 10억 원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용실은 되고 네일숍은 안 돼 X

미용실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네일숍은 사업자 등록상 업종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엇갈린다. 이미용업종으로 등록된 네일숍이라면 가능하지만 위생업종으로 등록된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마사지숍의 경우도 네일숍과 마찬가지의 적용을 받는다.

자영업자가 결제 거부할 수 있다 O

자영업자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만 결제를 원할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점주가 결제를 거부할 경우 본부에서 이를 받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자체가 본사 갑질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중교통은 사용 불가 △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지만 택시의 경우 거주지 내에 차고지를 보유한 택시는 재난지원금으로 이용 가능하다.

한의원 보약 지을 수 있다 O

지역 내 한의원과 개인병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고 사용금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금액 한도 내에서라면 보약을 짓거나 침술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박미선 기자 only@

정용진의 노브랜드 버거 '갓성비' 통했다

소비자 "가격·맛 모두 만족" 9개월 만에 30호 점… 직영 중심 '내실 다지기'

햄버거 업계의 이목이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노브랜드 버거'로 쏠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서도 꾸준히 출점을 이어가며 외형을 키워가고 있어서다. 노브랜드 버거는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맛, 철저한 시장 조사에 기반한 직영점 출점으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노브랜드 버거의 전신은 신세계푸드가 2018년 선보인 외식 브랜드인 '버거플랜트'였다. 1년간 연구·개발 끝에 탄생한 버거플랜트는 수제 버거 수준의 맛을 추구하면서도 4000~6000원대의 버거 세트를 선보이며 '가성비' 전략을 앞세웠다. 하지만 점포 확대에 어려움을 겪자 회사 측은 결국 브랜드 출시 1년여 만에 '노브랜드 버거'로 브랜드를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브랜드 교체는 '신의 한 수'가 됐다. 신세계푸드는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1층에 117㎡(35평) 규모로 노브랜드 버거 을지로4가역점〈사진〉을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노브랜드 버거로 리뉴얼 후 처음 오픈한 홍대점을 시작으로 매장 수는 9개월 만에 30개가 됐다.

노브랜드 버거 인기의 일등공신은 '가성비'로 분석된다.

대표 메뉴인 NBB 시그니처 버거 가격은 단품 기준 3500원, 세트 5300원이다. 세트 기준 맥올데이 메뉴로 할인 판매되고 있는 맥도날드 빅맥(4900원)보다는 400원 비싸지만, 롯데리아 불고기버거·새우버거(각각 5900원), 버거킹 와퍼(7900원)와 비교해 적게는 600원, 많게는 2000원 이상 저렴하다.

신세계푸드는 노브랜드 버거 론칭에 앞서 맛, 품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에 집중했다. 20여 명의 셰프들이 햄버거의 식감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최적의 식재료와 조리 방법을 찾아 테스트했다. 노브랜드 버거의 경우 가성비를 살리기 위해 모든 버거에 동일한 고기 패티를 사용하는데, 소스와 재료 조합을 늘리며 다양한 맛을 만들어냈다.

보수적인 출점으로 외형 강화보다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는 점도 노브랜드 버거의 강점이다. 7명 내외로 구성된 신세계푸드 NBB 개발팀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최적의 상권을 찾아 적합한 출점 여부를 검토한다. 회사 관계자는 "직영점 중심으로 운영하는 만큼 당장 가맹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품질 관리 등 측면에서 직영이 유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푸드는 2019년 8월 홍대점 오픈 이후 월평균 3~4개 매장을 꾸준히 출점해 왔는데, 지난해 말 오픈한 고속터미널점의 경우 일평균 약 1000개의 버거가 판매되고 있다.

이 외에도 홍보대사 한현민을 활용한 버거송 캠페인과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노브랜드 버거는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량 170만 개를 기록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노브랜드 버거는 SNS에서 '가성비 버거'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별로 신규 매장을 오픈해 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며 "향후 맛과 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높이고 동시에 지속적인 매장 확대를 통해 고객 접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수산물 최대 40% 할인

7일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수산물을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해양수산부와 손잡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7~13일 총 28톤 규모의 우럭·민물장어·바다장어·멍게·광어 물회 등 5가지 품목을 기존 가격보다 최대 43% 저렴하게 판매한다. 사진제공 이마트

롯데마트, 비건용 '고기 대신' 6종 출시

롯데마트가 대체육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비건 식품인 '고기 대신' 시리즈 6종을 론칭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고기 대신' 시리즈는 고기, 햄 없이 밥을 못 먹는 아이들부터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을 걱정하는 실버층과 채식주의를 통칭하는 '비거니즘' 열풍의 확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건인들을 겨냥한 상품이다. 일반적인 채식이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면, 비건(Vegan)은 종교적 신념과 생명윤리 의식 등의 이유로 우유, 달걀 등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배제한 엄격한 채식'을 말한다.

'고기 대신' 시리즈는 기존의 푸석하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콩고기 상품의 품질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기와 가장 가까운 식감을 낼 수 있도록 곤약과 해조류를 이용해 최적의 식감과 맛을 낸 것이 특징이다. '비건 양념 순살 후라이드', '비건 한입까스' 등 총 6종으로 각 8980원이며,

13일까지 '고기 대신' 론칭을 기념해 1개 구매 시 10%, 2개 이상 구매 시 2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CFRA는 2018년 약 22조 원 규모였던 글로벌 대체육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116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 비건 소비자도 2008년 15만 명에서 2018년 150만 명으로 늘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롯데마트는 과거 순식물성 원료로 달걀 대신 기능성 대두를 사용해 만든 '해빗(Hav'eat) 건강한 마요'를 출시한 바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이커머스 왕좌 굳히는 쿠팡 "대전에 신선식품 물류센터"

600억 투자 중부권 식자재 허브

쿠팡이 대구에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짓기로 확정한 데 이어 대전에 물류센터 투자를 예고했다. 새벽배송에 이어 신선식품 당일배송을 시작한 쿠팡이 공격적인 물류센터 투자 확대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선두 굳히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쿠팡은 7일 대전시와 쿠팡 물류센터 신설 투자,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쿠팡은 대전 동구 구도·낭월동 일원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3만319㎡ 부지에 2021까지 2년 동안 600억 원을 투자해 첨단 물류센터를 짓는다.

쿠팡 측은 "대구처럼 종합물류센터가 아닌 신선식품 전용 물류센터를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에 새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중부권 냉동식품·식자재 유통 허브 역할을 하는 한편 물류·포장·검수·배송 인력이 필요해 고용도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자체 물류망 확보에 중점을 두고 꾸준히 물류센터 확대에 투자해왔다. 쿠팡은 2014년 처음 로켓배송을 시작할 당시 27개에 불과하던 물류센터를 지난해 말 기준 168개로 늘렸다. 이는 쿠팡 캠프, 물류거점 등이 포함된 수치다.

쿠팡은 '배송'에 강점을 두고 물류센터를 지속해서 늘려가는 만큼 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새벽배송에 이어 오전 10시 이전 신선식품을 주문하면 당일 오후 6시까지 배송해주는 '로켓프레시 당일배송'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로켓프레시 서비스는 쿠팡 멤버십 프로그램인 로켓와우클럽 회원이면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말 대구시와 총사업비 3200억 원을 투자해 축구장 46개 넓이(약 10만 평 규모)의 초대형 첨단물류센터 조성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예정대로 내년에 완공되면 전국 단위 물류 시스템 구축 계획의 주요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박미선 기자 only@

“우리 건물인데 입주 제한” 규제에 우는 운용사

‘부동산 펀드’ 투자 건물 입주
현행법상 ‘위법’으로 이전 포기
IB·리서치 등 부서간 협력 지연
금융환경 변화 신속 대응 어려워

낡은 규제에 자산운용사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직접 매입한 사옥에 입주하지 못하거나 부서 간 협력이 제한되는 등의 사례가 늘면서 시대에 맞게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BNK자산운용이 여의도 삼성생명빌딩에서 서울파이낸스타워로 터를 옮겼다. 지난해 10월 삼성생명빌딩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3개월 만의 이전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85조 ‘고유계정과 신탁계정 간 거래 금지’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가 투자한 건물에 운용사가 입주하는 것은 위법이다. 금융그룹이 사옥을 짓거나 매입해 입주하더라도 증권사나 은행은 입주할 수 있지만 운용사는 제외된다.

해당 규정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6년 광화문 센터원빌딩에서 나와야했다. 앞서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펀드를 통해 센터원빌딩을 사들였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합병하면서 자사 펀드가 센터원빌딩을 보유하게 됐기 때문이다. KB자산운용은 2015년 여의도 유진투자증권빌딩(현 KB금융타워) 매입 이후 사옥 이전을 포기했다.

이외에도 대신자산운용, 베스타스운용 등 부동산 펀드를 운용 중인 다수의 자산운용사도 비슷한 이유로 사옥에 입주하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조항 자체가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돼 있다”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용사의 입주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닌 펀드 운용과 고유재산 간 거래 관계에 한해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이니즈월이나 파이어월 등의 규제도 낡은 규제로 손꼽혀왔다. 차이니즈 월은 이해상충이 있는 부서 간 정보교류를 막고, 파이어 월은 업무위탁을 금지한 규정이다. 해당 규정으로 자산운용과 투자은행(IB), 리서치 등 부서 간 원활한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지난달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이처럼 불필요한 규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유계정과 신탁계정 간 거래 금지’로 자사 펀드가 소유한 건물에서 이전할 경우 건물 공실률이 늘어나는 등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투자자 손실로 고스란히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한 운용사 대표는 “현 시대와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며 “그룹 차원에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 사옥을 마련하더라도 자산운용사만 홀로 떨어져 나와 외부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산 집에서 내가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불성실공시’ 올해 벌써 46건

유증·CB 납입일 연기·철회 12건
코로나 타격 시점 2~3월에 몰려
거래정지·한계기업도 다수 포함

올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상장사

※ 출처: 한국거래소

종목명	지정 사유	벌점
이에스브이	• 횡령 · 배임 혐의 지연공시 2건 등	24
럭슬	• 유상증자 결정 철회 1건 •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2건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 지연공시 1건 등	46
엔케이물산(코스피)	• 공급계약 체결공시 중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변경	2
코디엠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3건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해제 · 취소 지연공시	9
루미마이크로	• 주식교환 이전결정 철회	6.5
에스디시스템	• 유상증자결정 철회	9
투비소프트	• 유상증자결정 철회	4.5

중요 정보를 늦게 공시하거나 번복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 경기 악화 · 증시 급락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진 데다,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온 한계기업의 반복적인 공시 위반 사례도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코스피 · 코스닥 시장을 모두 합쳐 총 46곳이다. 전년(43개) 대비 소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신규 지정된 상장사 중 2개사(국보, 엔케이물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코스닥 시장에 속해 있다.

코스닥 시장 내 불성실공시 증가세는 2018년부터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그 폭이 가팔라지고 있다. 2016년 72건 수준에서 2017년 소폭 줄어들었다가, 2018년 101건으로 훌쩍 뛴 후 작년에는 120건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올해도 현재와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작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등의 납입 날짜를 연기하거나 철회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관련 공시들은 증시가 코로나19 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시점인 2~3월에 몰려 나왔다. 자금 조달을 추진하다 자본시장 상황이 악화하자 발행 대상자가 납입일정을 뒤집거나 전면 취소한 영향이다. 재작년이나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차례 납입 연기를 해오다 결국 철회 의사를 밝혀 ‘꼼수’ 논란이 인 상장사도 있다.

타법인 인수 · 매각 과정에서 이를 철회하거나 관련 사실을 늦게 공시한 경우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계약을 지연 공시한 경우도 9건에 달했다.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주가에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일부 상장사 주주들의 경우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공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급계약 금액 변경(6건) △경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지연 공시(4건) △경영권 분쟁 지연 공시(3건) 등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건수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업체들의 경우 경제 상황이 악화할수록 불성실공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세한 코스닥 상장사는 전문적인 공시 인력을 두기 어렵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된 상장사 중에는 이미 매매거래가 정지 중이거나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한계기업이 다수 있었다.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하는 연간 벌점 기준인 15점을 넘긴 상장사는 △럭슬(46점) △비츠로시스(35.2점) △한프(29점) △에스제이케이(22.5점) △라이트론(21.5점) 등이다. 이 밖에 에이아이비트, 아리온, 미래SCI, 비츠로시스, 에스마크, 코썬바이오 등 6개사는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등을 비롯한 이유로 현재 매매거래 정지 중이다.

특히 코썬바이오의 경우 지난달 24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상태다. 기심위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진행되는 심의 · 의결 절차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예정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경우 중요 공시의 정정 취소 등을 반복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투자자들 역시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 및 자금유출 공시 등 한계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에 투자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이노와이어리스, 영업익 6000% '껑충'

'무선망 최적화'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 효과

이노와이어리스가 지난해 영업실적을 전년보다 6000% 넘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 외형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크게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노와이어리스는 2005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으며 유무선 자동측정 및 제어 시스템 개발 및 제조 등을 영위하고 있다. 통신용 시험·계측기 및 스몰셀 등 개발, 제조, 판매 및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한다.

최근 3년 동안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액(연결)은 2017년 607억 원에서 2018년 640억 원, 2019년 969억 원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연결)은 2017년 6억 원에서 2018년 3억 원으로 반토막 났지만 지난해 154억 원을 기록하면서 크게 반등했다. 특히 작년 실적 개선이 돋보였다. 2019년(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51% 올랐으며 영업이익은 6046% 급증했다. 매출증가율(51%)보다 원가(25%)와 판관비(35%)가 적은 폭으로 증가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도 도움이 됐다.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수익성 개선에 주효했다. 회사 주요 제품군은 △무선망 최적화 △빅 데이터 △통신 T&M △스몰셀 제품군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는 5G 투자가 국내외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의 비중이 급증했다.

이노와이어리스 실적 현황

(단위: 억 원, %) ※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607	640	969
영업이익	6	3	154
영업이익률	1	0	16

실제로 최근 3년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의 매출 비중은 2017년 25%에서 2018년 25.8%로, 2019년엔 41.5%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해당 제품군 매출액 역시 155억 원에서 402억 원으로 증가했다. 해당 사업은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효율적인 원가 관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측은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은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은 고부가가치의 특성을 보이며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며 "차세대 5G 관련 시장을 조기에 선점할 수 있는 신규 제품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출 강화도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3년간 수출 규모는 2017년 372억 원에서 2018년 363억 원으로 2.4% 증가 수준에 그쳤지만 2019년엔 56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6% 올랐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유동비율 10년 만에 세 자릿수 회복

상장사 재무 분석

인선이엔티

코스닥 상장사 인선이엔티의 유동성이 해마다 개선되고 있다. 올 들어선 유동비율이 10년 만에 세 자릿수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인선이엔티의 1분기 유동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0%포인트 상승한 112.45%로 집계됐다. 유동비율이 마지막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연간으로는 2009년, 분기로는 2010년 2분기였다.

유동비율은 일반적으로 150~200%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지만 인선이엔티의 경우 그동안 줄곧 두 자릿수에 머물러 있었다.

최근 5년의 추이를 보면 해마다 유동자산은 증가했지만 유동부채는 오르내리면서 유동성 개선의 발목을 잡아왔다.
유동성 개선은 실적 반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선이엔티 재무손익 추이

(단위: 억 원, %, 2020년은 1분기)

	2018년	2019년	2020년
유동비율	61.62	94.28	112.45
매출	1760	1839	515
당기순손익	155	166	98

※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

작년 순익 상장 후 최대 166억
유동자산 873억으로 대폭 늘어

회사는 2016년 순이익 5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고, 이후 지난해까지 해마다 순이익이 늘고 있다.

2016년 당시 유동부채는 11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56% 증가했다. 315억 원 규모의 유동성 전환사채가 있었고, 단기차입금도 558억 원을 기록하면서 유동비율은 50.13%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1분기 기준 단기차입금은 524억 원까지 감소했고 무엇보다 유동성 전환사채가 7억 원 수준까지 줄면서 전체 유동부채는 776억 원을 기록했다. 2016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유동자산은 559억 원에서 873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유동성은 개선될 수 있었다.

인선이엔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등 친환경 자원 재활용 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부분 순손실을 기록하며 침체의 늪에 빠졌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 올해를 포함한 최근 5년간 꾸준히 성장세다. 지난해 기록한 순이익 166억 원은 상장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이기도 하다.

올 1분기 역시 영업이익 124억 원, 당기순이익 9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1.54%, 1318.7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광양과 사천 매립장의 가동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다.

성현동 KB증권 연구원은 "인선이엔티는 1분기 건설폐기물 처리 단가는 비수기 영향으로 다소 하락했지만 반입량 증가와 원가율 개선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레이언스·바텍, 치아 보철 소재 '지르코니아' 국산화 체제 구축

레이언스가 바텍(모그룹), 바텍엠시스(바텍 계열사)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지르코니아의 양산 체제 구축을 완료했다.

지르코니아는산화지르코늄을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치아 보철 소재로 쓰인다. 국내는 그동안 지르코니아 분말을 양산하는 업체가 없었다.

7일 회사 관계자는 "현재 지르코니아 개발을 마친 상태"라며 "목포 테크노파크 내 공장에서 10톤 이상 양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치과업계 사업 둔화로 양산 가동 일정을 조정 중"이라며 "치과 산업 정상화 시점에 맞춰 양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이언스는 엑스레이로 촬영된 이미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현하는 장치인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 전문기업이며 세계 최초로 의료용, 치과용, 동물용, 산업용 엑스레이 디텍터 제품의 모든 제품군을 구축했다. 바텍은 치과용 진단기기 국내 1위, 세계 3위 기업이다. 바텍엠시스는 치과용 통합 솔루션(엑스레이 유통, 치과용 소재 제조 등) 업체다.

삼사는 시너지를 위해 치과용 첨단소재 사업인 지르코니아 소재의 국산화를 시도했고, 레이언스는 지르코니아 분말 원천기술을 확보, 양산하기 위해 신소재 기술센터를 설립했다. 바텍엠시스는 지르코니아 파우더를 가공해 블록으로 제조하는 생산 기술을 갖고 있어, 바텍의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전 세계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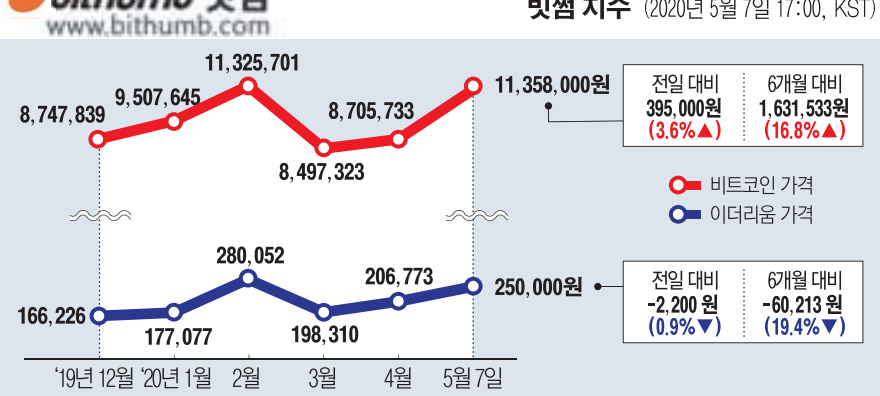
회사에 따르면 지르코니아 치과용 분말의 시장은 약 3000억 원 규모다. 자동차 이차전지, 분쇄기, 연마기 소재 등을 포함한 산업용 지르코니아 전체 시장은 7조 5000억 원 규모에 달하며, 고난도 기술개발로 지르코니아 소재의 활용도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다.

한편 지르코니아는 세라믹의 한 종류로 치아 결손 발생 시 인공물을 보충해 기능을 확보하는 보철치료에 사용되는 소재다. 고종민 기자 kjm@

오전 10시에 제공하는 투자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Money 10에 게재됐습니다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0년 5월 7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298,300	-2,600 (0.9%▼)	모네로	72,250	-2,250 (3.0%▼)
리플	262	-4 (1.5%▼)	비트코인골드	11,810	30 (0.3%▲)
라이트코인	55,900	-1,100 (1.9%▼)	이더리움 클래식	8,485	-315 (3.6%▼)
대시	94,350	-2,900 (3.0%▼)	퀀텀	1,872	-35 (1.8%▼)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용산 개발 2년 만에 '용틀임'…국제업무지구 조성 재개?

용산에 8000가구 '미니 신도시' 계획 무산됐던 '마스터플랜' 재탄력 받을 듯
"역대급 로또" 인근 부동산시장 들썩
서부 이촌동 아파트 매수문의 '부쩍'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일지

2007	용산국제업무지구 통합 개발안 발표. 코레일–삼성물산 컨소시엄, 공동 사업자 선정
2010	삼성물산, 컨소시엄 주관사 지위 반납. 롯데관광개발에 지분 위탁
2012	사업 마스터플랜, 계획설계 공개
2013	사업 시행사, 재무 불이행(디폴트) 상태. 코레일, 사업협약 해제 통보. 도시개발구역 해제
2018	박원순 서울시장, 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청사진 제시. 서울시–국토부 협의 후, 마스터플랜 공개 보류 결정.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유휴부지 18곳을 개발해 주택 1만5446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8000가구의 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용산역 정비창 부지. 연합뉴스

'용산 정비창 8000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도 다시 꿈틀대고 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논의가 멈춰선 지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코레일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웬만한 중형 택지지구 규모와 맞먹는다. 용산역 정비창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서울 도심에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용산역 정비창의 경우, 내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마치고 이르면 2023년 입주자를 모집하는 걸 목표로 잡았다. 통상적인 주택 건설 공정을 고려하면 2026년께 도시 모습을 갖추고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 공급 부지 18곳 가운데 용산역 정비창이 유독 관심을 끄는 건 이 부지가 가진 잠재력과 우여곡절 때문이다. 용산역 정비창 부지는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가운데 핵심이었다. 국토부 전신인 건설교통부는 231조 원을 투입해 용산역과 서부이촌동 일대 56.6㎢에 금융·IT·관광 중심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개발사업 중 최대 규모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은 기울기 시작했다. 자금난으로 민간 투자사가 잇달아 이탈하면서 2013년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용산역 정비창 부지가 지금까지 빈 땅으로 남아있는 이유다. 2018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 개발 마스터플랜을 그해 하반기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국토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용산역 일대 개발은 지금까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부동산 개발업계에선 이번 발표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다시 탄력을 얻었다고 평가한다. 국토부가 용산역 정비창 부지에 주택과 함께 도시기반시설·업무시설·상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은 벌써 들썩인다. 민간에 매각되는 4000가구가 분양되면 막대한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역대급 로또 아파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아 막대한 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용산역 전면에 분양한 '래미안 용산 더 센트럴'과 '용산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는 현재 3.3㎡당 5000만 원에 거래되며 서울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로 자리 잡았다.

인근 지역 부동산시장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한때 용산역 정비창과 국제업무지구 부지로 함께 묶였던 서부이촌동이 대표적이다. 서부이촌동은 용산역에서 한강 방면으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잡은 만큼, 정비창 부지가 개발되면 함께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이 용산 개발 재추진을 시사한 2018년에도 이촌동 집값은 1년 동안 25.6% 급등했다. 한강로2가에서 나이스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황명자 대표는 "서부이촌동 아파트 매수 문의가 많아졌다"고 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재건축 올스톱' 여의도 시선 집중

50년된 시범아파트도 개발 못해
'용산 마스터플랜' 재가동 기대 커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8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인근 여의도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용산역 정비창 부지가 여의도와 함께 '여의도·용산 통개발' 구상의 핵심축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으로 코레일 소유 용산역 정비창 부지(51만3000㎡)에 아파트 8000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시는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중심으로 일대 52만㎡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기 위한 세부적인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준비 작업을 마친 상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용산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여의도도 시장의 집중 관심을 끌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용산과 여의도를 연계해 2030년까지 용산을 동아시아의 핵심 국제도시로 만들고, 여의도는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아우른 초고층 국제·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장기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논란을 빚었던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도 이 같은 구상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집값 급등 우려로 여의도·용산 통개발 계획은 잠시 보류됐으나 서울시는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지난해 초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에도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일부가 포함되기도 했다.

다만 여의도의 경우 용산역 정비창 부지처럼 정부가 사업을 주도할 만한 대규모 국공유 유휴부지가 전무한 데다 개발 시 정부가 꺼려하는 고가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용산 개발이 본격화하면 여의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한 여의도에 들어선 아파트 대부분이 70년대에 지어져 40년이 넘은 노후단지여서 개발을 더이상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의도 T공인 관계자는 "서울의 얼마 남지 않은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용산역 정비창 부지가 주거 단지로 개발된다는 소식에 이곳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선 여의도·용산 통개발 사업도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지하주차장 외벽도 레고 블록 맞추듯 뚝딱~"

GS건설, 국내 첫 'PC공법' 성공

GS건설이 국내 최초로 지하주차장 외부 벽체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 PC공법은 기둥, 보, 벽체,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는 레고 블록처럼 조립만 하는 것이다. 이 공법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진국형 모듈러 기술이다.

GS건설은 7일 PC공법을 지하주차장 외부 벽체로 확대 적용하는 기술을 실제 시공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PC 생산회사인 아이에스동서와 함께 개발한 것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벽을 100% PC공법만으로 시공에 성공한 것은 국내 처음이다.

GS건설은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 재개발 현장에 이 기술을 시범 적용했으며 앞으로 착공할 현장에도 이 기술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지하 3개 층 벽체에 적용하는 기술과 내진설계를 반영하는 기술 연구도 진행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문선영 기자 moon@

교육부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발표
학습계획서 사전 승인 필요
에어컨 켤때 창문 살짝 열어야

등교 수업 후에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또 개학 이후 학교 에어컨 가동과 관련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열면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4일 이달 13일에 고3부터 순차 등교시키기로 발표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해 등교 수업 때 학교에서 지켜야 할 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먼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 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외체험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학습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고 사후에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증상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 즉 등교 중지 기간에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결석 기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에어컨 가동 여부는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일과 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하도록 했다. 이는 교실 온도가 높아지면 마스크나 얼굴을 만지작거리느라 감염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조처다.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하기 일주일 전부터 매일 가정에서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다음 학교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등교 수업이 시작한 후에도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자가 진단 항목에는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의 증상 여부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가 담겼다. 학생은 자가진단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교할 수 없지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학생과 교직원은 등하교 및 수업 시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다만 점심 등 불가피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 밖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님과 학생, 교직원 모두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되,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등교 준비 한창

교육부가 에어컨 사용 지침이 포함된 등교수업 관련 세부지침 수정안을 발표한 7일 서울 광진구 양진초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이 교실 에어컨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형 부사장 집유

김인규 대표 등 경영진 포함
재판부 "경영권 승계에 이용"

편법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형 부사장 등 경영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은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도 명했다.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상무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삼광글라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공캔의 원재료) 거래와 글라스락 캡(유리밀폐용기 뚜껑)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서영이앤티의 경쟁력이나 효율과 무관한 계열사인 하이트진로를 이용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고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하이트진로의 지원으로 서영이앤티는 10년 새 맥주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했다. 안 부장판사는 "이는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했으며 국민경제에 대한 폐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부사장이 서영이앤티의 지분을 취득한 뒤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도 유통 이득을 취득했다"며 "서영이앤티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최종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받는 혐의 가운데 서해인사이트 관련한 부분만 증거가 없어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 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심리

주심에 노정희 대법관 지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노정희 대법관이 심리한다.

대법원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특검은 2월 정준영 부장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갖고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항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삼성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6일에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특검은 "양형 사유로 활용이 불분명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은 환송전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2~3달 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우리 모두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까다로운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개인 위생 매뉴얼 준수
위생 전문가의 관리
철저한 소독·살균

h point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면세점 | 한섬 | 현대리바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현대Hmall | 더현대닷컴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서울 초중고생 '식재료 쿠폰' 10만원 받는다

1335개교 학생 86만명 대상
박원순 시장 "가정 식비 부담 완화 개학연기 급식 농가 고통 분담"

박원순(가운데) 서울시장,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 김영종 구청장협의회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친환경 급식 식자재 생산·공급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생 식재료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서울시

서울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재료가 지원된다. 두 달간 개학 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공급 업체를 돕고 학생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다.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및 25개 자치구는 친환경 급식 식자재 생산·공급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학생 식재료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개학이 두 달 넘게 연기되면서 지출되지 않은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식품비 잔여 예산)을 활용해 친환경 쌀 등 10만 원 상당의 학교급식 식자재를 서울지역의 모든 학생 가정에 지원한다.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등 총 1335개교 86만 명이 대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각 학생 가정의 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식재료 납품이 막혀버린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와 급식업계와의 사회적 연대와 상생으로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 식재료 바우처 지원은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 형태로 제공된다. 각 학생 가정의 학부모의 스마트폰으로 발송되며, 받은 모바일 쿠폰에 배송받을 주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문이 완료돼 편리하다. 쿠폰의 유효기간은 7월 말까지다.

모바일 쿠폰으로는 3만 원 상당의 '친환경 쌀'과 3만 원 상당의 '농축산물 또는 농수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각각 5월과 6월 중 가정으로 배송된다. 나머지 4만 원은 '농협몰'(www.nonghyupmall.com)에서 학부모가 직접 원하는 상품으로 선택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꾸러미의 내용물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모든 가정에 동일한 꾸러미를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편의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많은 학부모의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막대하다"며 "5월부터는 본격적인 친환경 농산물이 출하되는 시기인 만큼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식재료 바우처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위기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했다"며 "농가와 급식단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시-구-교육청이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설경진 기자 skj78@

동대문구, 도시재생 가속도 감초마을 등 주택 수리 지원

서울 동대문구가 지역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7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2020년 제기동 감초마을 주택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제기동 감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낡은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대문구는 도시재생사업비 총 4억 원을 투입해, 주택 가구당 공사비용의 90%, 최대 1117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20일까지 △주택개량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건축견적서 △시공 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제기동 감초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동대문구는 또 지난해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제기동 고대앞마을'의 도시재생을 지원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서울시-과기부, SW인재 年 1000명 양성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237억 투입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신축

서울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잡고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시설을 신축해 현재 연간 교육 가능한 인원 430명을 1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서울시는강남구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교육시설을 신축한다고 7일 밝혔다. 총 예산은 237억 원이 소요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수업·강의 등 기존의 교육 방식을 벗어나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쌓는 소프트웨어 혁신 교육기관으로 지난해 12월 개관했다. 교육 기간은 2년(비학위)이며, 반기별 250명씩 연 5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열림관(강당) 자리에 신축되는 교육시설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6576.33㎡)로 건축되고, 고정석 600석, 자유석 150석 규모의 코딩룸과 멘토링룸,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기존 교육시설의 경우 입교 전 이수해야 하는 4주간의 집중교육 진행 공간이 부족하고, 2년 비학위 과정이 동시 운영될 경우 최대 상주인원 1000여 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부지 내 건물 신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현재 1기 교육생 207명이 2월부터 '42서울' 교육 과정을 원격수업 중으로 신축 교육시설은 6~8월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2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방일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서울시와 과기부가 협력해 2019년 2월 협약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신축건물 예상 조감도.

이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관, 1차 신입생 선발, 신축교육관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최대 1000명이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확장해 개포디지털혁신파크가 소프트웨어 혁신 인재의 요람으로 거듭나도록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 4곳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추진

서울 양천구는 관내 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 4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을 추진한다.

양천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구상해 3월 서울디지털재단이 실시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지원 사업 공모'에 지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설치 예정 장소는 신정2동 신목동초등학교, 신월2동 신강초등학교 일대 4개소다. 초등학교 관계자, 경찰서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설치 장소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 중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국악인생 50년, 심금 울릴 단 하나의 소리 남겨야죠”

국악인 김영임

세월이 흐를수록 깊은 멋과 농익은 울림을 품은 국악인 김영임(67)의 소리는 곧 대한민국 단 하나의 소리로 거듭나기 위한 여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2년 선소리 산타령 예능 보유자인 이창배를 사사하면서 국악을 시작해 1974년 발표한 ‘회심곡’으로 전국적인 히트를 기록한 경기민요와 12잡가의 대가 김영임.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답다. 외모가 빛나서가 아니라 순간순간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기에 국악의 아이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람들 가슴속을 파고드는 천상의 노래, 구성진 가락에 어깨가 들썩이고, 가슴속 맺힌 응어리를 풀어주는 그 소리의 주인공 김영임의 삶과 꿈을 들여다봤다.

김영임은 자신만의 브랜드 콘서트를 갖고 있는 드문 국악인이다. 그녀는 매년 5월이 되면 국내 최초의 국악 뮤지컬인 ‘김영임의 소리 孝’ 공연을 한다. 그러나 벌써 20여 년을 훌쩍 넘겨 계속되며 그녀의 브랜드가 된 ‘김영임의 소리 孝’이지만 올해는 볼 수 없다. 코로나19 때문이다.

“50여 년 동안 국악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공백 기간이 긴 건 처음이에요. 5월을 준비하고 시작하다 보면 1년이 금방 가곤 했는데…. 그런데 반대로 보면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저를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 공허함이 좀 사그라지더라고요. 넘어진 김에 쉬었다가 간다고 하잖아요.”

소리는 운명적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그녀의 일상을 지켜주는 것은 다름 아닌 소리다.

“전라도 쪽에 ‘편’ 소리가 있듯 경기 소리에는 경기 잡가가 있어요. 장구 하나를 두고 6박 장단으로 부르는 소리인데, 열두 개를 다 하려면 네 시간 정도 걸려요.”

소리를 하고 싶어지면 혼자 방석을 깔고 앉아서 장구를 치며 경기 잡가 열두 바탕의 소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면 행복해진다고 한다. 김영임과 소리가 만난 것은 꽃다운 나이, 열아홉 살 때였다.

“처음에는 가족들의 만류로 못하다가 일 년 후 다시 했죠. 많이 반대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기에 구렁텅이로 들어가도 헤쳐 나오겠다’고 말하고 소리를 하게 됐죠. 국악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민속경연대회에서 장원을 하고, 스케줄 펑크를 낸 선배 대신 나간 방송 프로그램 PD에게 섭외된 그녀는 국악 드라마 주인공으로도 출연했다. 카메라맨들의 사랑을 받는 미녀 국악인으로서, 지금 시대로 보면 아이돌로서 활동을 하던 그녀는 레코드 회사 섭외를 받아 ‘회심곡’ 음반을 내면서 마침내 대박을 쳤다. 그녀는 그때의 자신을 “행운의 열쇠를 거머쥔 거나 다름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게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했던가. 그런 삶 속에서 그녀의 상처는 점점 쌓여갔다.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그런 것도 내 인생의 잊지 못할 일들이죠.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배움으로 생각해요. 너무 빨리 이름을 얻어서 고개를 들고 다니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닐진데….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배운 거죠.”

소리꾼의 삶과 한

소리꾼과 한(恨)을 떼고 생각하기란 어렵다. 한은 우리 소리의 절절함과 곡절을 그대로 설명해주는 단어이며, 소리꾼이 가진 한이 소리에 담김으로써 그 소리는 완성된다고도 한다. 어린 나이의 성공, 그로 인한 인간관계에서의 상처, 그리고 오랜 시집살이를 해야 했던 전통 사회 여성으로서의 한이 김영임에게는 있는 게 아닐까. 그녀의 남편은 1970년대를 풍미했던 코미디언 이상해 씨. 1979년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그들은 어느새 41년을 부부로 살아가고 있다.

“친정에서 일 년 살다가 큰딸이 두 살일 때 시집과 합쳤어요. 그때부터 시어른들과 지냈죠. 저는 장손의 큰며느리였어요. 그런데다 시집 분위기가 가부장적이어서 어른들은 장손이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다

한은 마음에 흔적을 남긴다. 김영임 또한 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울컥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텅 빈 것 같아요. 남편과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고 추슬러야겠죠. 저에겐 가야 할 길이 아직 있으니까요.”

그녀가 가야 할 길이란 물론 소리꾼의 길이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자신에 대해 ‘아직까지도 도전하며 뛰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전수교육 보조자인 그녀가 생각하는 다음 단계는 무형문화재로서의 길이다.

“앞 세대 선생님들을 보면 여든이 넘어가면 기력이 안 돼서 노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미리 생각하면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오늘도 내일도 사람들이 원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며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나이 먹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의욕이 사그라지지 않더군요.”

그녀가 지키는 부부의 세계

변치 않는 도전의식을 가지기로 결심한 김영임의 나이는 올해 예순일곱 살, 여덟 살 연상인 남편은 칠순 중반이다. 이제 부부 사이에 알콩달콩한 무언가가 있을 나이는 아니다.

그래도 생활의 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며 부드러워진 걸까. 그녀에게 이혼과 졸혼을 선택하는 황혼부부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어봤다.

“사실 우리 부부도 이혼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혼해서 나아질 게 뭐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자도 여자도 초라해지고…. 그건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로가 좀 절충을 해야 하고, 깨지도록 싸워도 끝까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래도 한 가정을 이루고 산 세월이 있잖아요. 해답은 대화에 있다고 봐요. 상대를 존중하는 언행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요.”

열아홉에 ‘소리’ 시작… ‘회심곡’ 대박 났지만 질투·상처 받아
노래는 나의 멘토… 잘못된 길 가려 할 때 붙잡아 주는 버팀목
다음 목표는 무형문화재… 대한민국이 원하는 소리 하고 싶어

소리는 운명, 노래는 그녀의 멘토

김영임은 살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첫 번째로 지금까지 놓지 않은 소리를 꼽았다.

“소리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 내 할 탓이다 싶고요. 인간관계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쁜 사람도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을 잘 지킨 거죠.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내 새끼들은 먹인다’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녀는 살면서 친정어머니의 말씀을 두 번이나 어겼다. 소리를 하겠다는 것과 어머니가 반대한 남자와 결혼을 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두 가지 일에서 어머니와 한 약속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

“노래하면서 잘못 사는 인생은 안 살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 남자와 결혼한 뒤 친정에 보따리 싸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둘 다 지켰죠.”

그녀가 어머니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은 소리의 힘이기도 했다. 50여 년 가까이 만들어진 김영임의 소리는 그녀의 인생과 일맥상통하는 멜로디와 가사가 함께해왔다.

노래는 그녀의 멘토였고 그녀가 잘못 가려 할 때 붙잡아주는 버팀목이었다.

대한민국이 원하는 소리 이룰 것

앞으로의 일에 대해 큰 욕심을 부리고 싶지 않다는 김영임은 공연을 준비하고 후학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결실을 계속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티 내고 과시하는 게 싫다는 그녀다운 대답이었다.

“김영임답게 살아가면서 ‘저 여자 지혜롭게 잘 맞춰서 사는 여자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기에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 소리는 인정할 소리다’라는 말을 듣고 싶죠. 최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하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걸 남기고 싶어요. 이 소망이 마음 한쪽에 남아 있는 건 아직 제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글/김영순 기자 kys0701@
사진/홍상돈 프리랜서 photohong1@hanmail.net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김대수 사장님 (마포구 부부요리단)

[사업자응원통장]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사업자응원통장**' 신규 가입 시 은행의 매칭 기부 1억원과 추가 기부를 통해 총 3억원의 기부금을 조성, 전국 영세 소상공인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13,500여 명의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전달하는 **코로나 19 극복 기원 기부 챌린지**를 실시합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라며 눈물 보이시던 사장님,
사장님과 가족분들의 행복을 KB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0784호(2020.04.28), 광고물 유효기한 2020.12.31까지

KB 국민은행

"다시 일어서는 보리 산업 '컬러보리'가 이끕니다"

이미자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연구사

'보릿고개' 가난의 상징 … 건강 관심 높아져 웰빙식품 재조명
세계 첫 유색보리 개발, 고창서 흑·청·자색 생산 年 10억 매출

"보리는 이제 가난의 상징이 아니죠. 특화 품종 개발을 통해 보리는 웰빙 식품의 대표 주자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이미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연구사는 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 보리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때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보릿고개'라는 말을 만든 보리는 우리에게 가난의 아픔을 먼저 떠올리게 한다. 이제는 추억의 음식 정도로 치부되며 가끔 한 번씩 먹는 정도에 그친다. 실제로 국내에서 보리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12년 이후 1.3~1.4㎏에 머물러 있다. 재배면적도 지난해 기준 4만7000㏊에 불과하고 연간 생산량은 10만3000톤 정도다. 하지만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리가 웰빙 식품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이 연구사는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전통적인 보리 생산과 이용 방식으로는 소비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보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도별 고품질, 가공 이용성 또는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진청은 보리쌀용이 아닌 차별화된 제품 개발에 나서 세계 최초로 유색보리를 개발했다. 전북 고창에서 흑누리(흑색), 강호청(청색), 자수정찰(자색) 쌀보리 등 세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삼색 보리쌀 제품을 출시했고, 2018년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색깔보리는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효과가 있는 기능성 물질이 일반 보리보다 많고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색깔보리의 대표 품종인 흑누리는 일반 보리와 비교했을 때 검정보리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4배 높고 식이섬유도 1.5배 많다. 특히 가공 특성이 우수해 식음료 기업에서도 검정보리를 활용한 빵, 커피, 국수 등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에 주력해왔다.

2018년 농진청, 고창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하이트진로는 2018년 '블랙보리'를 출시, 작년 12월까지 누적 판매량 9200만 병을 돌파했고, 미국을 비롯해 베트남과 호주, 괌, 홍콩, 일본 등 총 6개국에 활발히 수출 중이다.

이 연구사는 "농진청이 품종 육성과 가공용도별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는 등 기술 지원을 하고, 고창군에서는 고품질의 안정한 원료를 생산, 하이트진로음료와 같은 가공업체에서는 국산 보리를 원료로 하는 가공제품을 개발해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등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미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연구사는 "가난의 상징이었던 보리가 웰빙 식품의 대표주자로 올라섰다"며 "빵, 커피, 국수 등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흑누리는 커피로도 재탄생했다. 농진청은 지난해에 일정 비율의 디카페인 커피 원두를 국산 검정보리인 흑누리로 대체해 카페인 함량을 낮추고 베타글루칸과 등 기능 성분이 들어 있는 디카페인 '보리커피'를 개발했다.

이 연구사는 "국내 커피 시장의 규모는 7조 원에 달하고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보리가 수입 원두를 대체하고 보리 소비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품질 유지다. 유색보리는 색깔이 있어 일반보리와 섞이면 원료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파종, 수확 시 기계 혼입 등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사는 "고창 지역에서는 보리 가공산업의 용도별 적합 품종을 선발하고 계약재배 등을 통한 유색보리 단지화를 구축해 원료 안정 공급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산업체에 고품질 원료를 공급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다면 보리가 농가 소득을 올리는 효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에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후임으로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7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 국장은 서울 경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5회로 주제네바유엔사무처 및 국제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WTO 국내규제작업반 의장 등을 거쳐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과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꼼꼼하고 기획력이 뛰어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환 기자 whan@

예탁결제원 전무이사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은 7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임기 만료된 박임출 전무이사의 후임으로 박철영 전 예탁결제원 예탁결제본부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철영 신임 전무이사의 임기는 8일부터 시작된다. 임기는 3년이다.

박 신임 전무이사는 강원 홍천 출생으로 강원사대부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1991년 한국예탁결제원에 입사해 법무팀장, 전자증권팀장, 리스크관리부장, 경영전략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및 예탁결제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이진우 세계족부족관절학회장

연세대 의과대학은 이진우 정형외과학교실 교수가 최근 세계족부족관절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진우 교수는 25일부터 3년간 차기 회장으로 활동하며, 2023년에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세계족부족관절학회(IFFAS)는 족부족관절학 분야의 학문과 진료, 연구, 교류 및 발전을 위해서 이 분야 전 세계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모인 학회다. IFFAS에서는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등 4개 대륙에 지역별 학회를 운영 중이다. 이 교수는 현재 대륙별로 4명이 선정되는 IFFAS 이사이며 사무총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코로나 이후 美 쇠퇴하고 中이 글로벌 패권 잡는다"

헤지펀드 대부 레이 달리오

미국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설립자로 '헤지펀드 대부'라는 별명이 있는 레이 달리오〈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패권을 잡을 것이라는 예언을 내놓았다.

달리오는 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쇠퇴하는 이유에 대해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에 있는 가운데 신흥국 등이 달러 표시 채무를 상환하고 달러에 의한 물건 구입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디폴트(채무불이행)나 채무 탕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달러 발행 증가 등으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미국도 쇠락할 수밖에 없다. 대영제국과 네덜란드의 쇠퇴도 채무 확대, 통화가치 하락과 함께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故 정인영 한라그룹 창업주 탄생 100주년 기념식

한라·만도 경영진 참석 "중공업 초석 다진 선구자" 추모

한라그룹이 정인영〈사진〉 창업 회장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미래를 다짐했다.

그룹은 7일 경기도 용인에 자리한 한라인재개발원 '운곡관(Memorial Hall)'에서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과 홍석화 한라홀딩스 사장, 이석민 ㈜한라 사장, 탁일환 만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 회장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1920년 5월 6일생인 정인영 전 회장은 대한민국 중공업 발전의 초석을 놓은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1996년까지 경영일선에서 활약했고, 이후 명예회장에 이름을 올렸다. 2006년 숙환으로 별세했다.

창업 회장의 신념("꿈꾸는 자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이 주제였던 이날 행사는 창업 회장의 회고 영상을 감상하고 기념 평전과 웹툰 소개, 운곡관 재단장 오프닝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정몽원 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창업 회장님은 불굴의 정신과 패기로 거침없이 꿈을 실현한 선구자였다"며 "불확실성이 큰 역동의 시대에 '파이어니어 정인영'의 삶에서 용기를 얻어 새로운 한라그룹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KAI, 중소협력사 상생협력기금 100억 출연

스마트공장 구축·신기술 개발·근무환경 개선 지원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7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대·중소기업 및 농어업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KAI는 중소협력사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100억 원을 출연한다. KAI는 협력재단에 1차로 올해 상반기까지 50억 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5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상생협력기금은 20여 개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항공산업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신기술 및 원가절감 공정 개발, 근무환경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KAI는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추가 지원에도 나선다. 협력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 안정화 자금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또 경상남도 상생자금 2차 지원 사업과 연계한 운전자금 200억 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안현호〈사진 왼쪽 네 번째〉 KAI 사장은 "기금 출연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중소협력사와 함께 항공산업의 발전이 지역사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인사

◆**행정안전부** ◇서기관(행정) 승진 △홍보담당관실 최혜선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현정 △협업정책과 김동환 △조직기획과 박희건 △조직기획과 허영지 △국민참여혁신과 김효선 △자치분권제도과 박찬경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이효선 △생활공간정책과 박효영 △지방세정책과 한송희 △지역일자리경제과 강병철 △지역일자리경제과 신종필 △지방규제혁신과 원충희 △감사담당관실 이철우 △상황담당관실 길영수 △안전개선과 문정호 ◇기술서기관(전산) 승진 △정보통계담당관실 황성식 △국제디지털협력과 윤정태 △국제디지털협력고가 송호순 △디지털안전정책과 승형배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소진숙 ◇기술서기관(시설) 승진 △지역균형발전과 양대성 △안전기획과 전경수 △재난대응정책과 강진모 △보건재난대응과 이훈구 ◇기술서기관(방송통신) 승진 △행정한류담당관실 강권모 ◇기술서기관(방재안전) 승진 △안전문화교육과 정의윤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변동주 △운영지원과장 김수일 △농촌정책과장 최정록 △식량산업과장 지성훈 △원예경영과장 김희중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장 송지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장 정병석 ◇과장직위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장 정재환

◆**법제처** ◇부이사관 승진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최종진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성기 △〃 전산기획담당관실 박광수 △〃 감사담당관실 이광호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엄인찬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승현 △〃 징세과 정상수 △〃 징세과 김태성 △〃 부가가치세과 권영림 △〃 소비세과 이인우 △〃 부동산납세과 조성래 △〃 조사2과 이슬 △〃 조사분석과 전재달 △〃 장려세제운영과 오주희 △〃 운영지원과 박광식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임경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남궁서정 △〃 송무1과 정현미 △〃 조사2국 조사1과 노구영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상원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이용안 △〃 조사1국 조사2과 이상용 △〃 조사2국 조사1과 이병오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정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종호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백계민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김부한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정영배 △〃 조사2국 조사2과 허종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박철영

◆**한국고용정보원** ◇실·단장 임명 △혁신기획단장 이희성 △경영지원실장 이명재 △정보보호운영실장 정영현 ◇팀장 임명 △혁신기획단 고객성과팀장 조만수 △혁신기획단 디지털기획팀장 김균 △경영지원실 운영지원팀장 마성옥 △고용정보서비스실 워크넷팀장 지한수 △고용정보서비스실 취업지원팀장 송은주 △일자리플랫폼실 부정수급관리팀장 곽은경 △정보보호운영실 고객상담팀장 박인기 △정보보호운영실 정보보호팀장 강문형 △정보보호운영실 시스템운영팀장 정은자 △연구기획팀장 전용석 △청년정책허브센터 청년정책연구개발팀장 김강호 △청년정책허브센터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장 김영훈

◆**피알메이트** △대표이사 김격수 △부사장 신현복

부음

▲**최복길** 씨 별세, **김상신**(STEC컨설팅 전무)·**상운**(하나은행 심사부 팀장)·**상철**(CBS 비서실장) 씨 모친상, **김승환**(LG U+ 기업부문)·**시환**(서울시청 재무국)·**예린**(대한항공) 씨 조모상, **최영은**(현대자동차) 씨 시조모상 = 6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8일 오전 10시, 02-2227-7594

▲**김춘애** 씨 별세, **원태경**(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씨 모친상 = 7일, 강원효장례식장 201호,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010-4242-8080

▲**신숙자** 씨 별세, **박영률**(커뮤니케이션북스 대표)·**영호**(전 EBS PD)·**영서**(디지털타임스 논설위원)·**영민**(자영업) 씨 모친상, **이지혜**(한림대 교수)·**김미경**·**서남엽** 씨 시모상 = 7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02-2227-7560

▲**이천열**(후피부과 원장) 씨 별세, **이영순** 씨 남편상, **이설**(동아일보 국제부 차장)·**후민**(신세계사이먼 팀장) 씨 부친상, **최우열**(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씨 장인상, **박소라** 씨 시부상 = 7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7시, 051-610-9675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전 주핀란드 대사

북한의 양성평등과 여성 후계자

최근에 김여정이 권력을 승계할 수 있을지를 놓고 말들이 오갔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역사는 북한의 가부장주의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사회적 엔지니어링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수령이 정하면 여성이 수령이 되지 못할 것도 없을 것 같다.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에 여성 권리와 양성평등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 1945년 11월에 전국적 여성단체인 조선민주여성동맹이 조직되었고 1946년 7월에는 남녀평등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노동, 결혼, 이혼, 재산 상속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주민은 유일영도체계에 따라 수령에게 절대 충성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통치이념으로 인하여, 초기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여성 권리 향상과 양성평등은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에서 여성 권리의 역사는 4대 대중조직 가운데 하나인 여성동맹(여맹)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 시대에 따라 여맹의 역할도 변화했는데 1960년대 중반까지는 여성을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고 조직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하는 것이었다. 이 주제는 당시 북한 남성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지만 여성들에게 더 높았던 문맹 퇴치와 사회와 가정에 남아 있던 봉건적 잔재의 일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권리와 양성평등에 대한 함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맹은 1971년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 김성애가 위원장을 맡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 이때 여맹의 지위가 다른 대중조직과 같은 수준으로 승격되었다. 김성애가 위원장에 취임하는 행사에 김일성이 직접 참가하여 여성과 가정의 혁명화를 여맹의 주요 과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에서 여성 권리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부상하면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1983년 6월 김정일에 의해 소집된 여맹 대회는 여맹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김정일은 여맹의 제도 개편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맹원 자격의 변경이었다. 이전에는 만 18세 이상 여성이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때부터는 직업동맹, 청년동맹 등 여타 대중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만으로 기준을 바꾸어 버렸다. 다른 대중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여성이란 대다수가 가정주부와 은퇴한 여성들이다. 여맹 회원이 크게 줄고 비중 또한 현저히 약화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김정일이 여맹을 약화시킨 배경에 여맹 위원장 김성애와의 갈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김정일 시대 여성 문제는 담론 차원에서도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당시 북한 선전매체들은 아들, 딸을 많이 낳아 견결한 총대투사로 키우는 것이 조선 여성들의 책임적 본분이라고 하였다. 공식 매체에서 여성의 역할을 수령을 결사 옹위할 '충성동이'를 많이 낳아 기르는 것으로 자리매김한 사례는 북한 말고는 없을 것 같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많은 북한 여성들은 국가 배급이 끊긴 상황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마당에 나가 단속을 피해가며 장사를 해서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 가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았다.

최근에 김여정이 권력을 승계할 수 있을지를 놓고 말들이 오갔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북한에서 최고의 여성 영웅은 김정숙(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이다. 김정일 시대에 들어 김정숙에 대한 우상화가 활발해지고 김정숙 따라 배우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운동의 핵심적인 구호는 '모든 여성은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견결히 보위한 백두의녀장군 김정숙 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워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결사옹위해나가야 한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근거리에서 김정은을 보좌하는 김여정의 모습은 북한 사람들의 눈에 전혀 거슬리지 않을 수 있다. 지난 5월 1일 순천비료공장 준공식에서 보여준 김여정의 모습이 한 예이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수령을 옹위하는 데 한정되는 한 여성의 역할에도 한계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여성이 수령이 될 수 있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이다. 북한의 역대 권력자들은 가족이나 혈통 가운데 자신의 권력에 도전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을 배제시킨 소위 '곁가지 치기'의 이력이 있다. 한편 지금까지 혈족 가운데 권력의 중심부에 들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여성들이다. 왜일까. 남자는 권력자에게 도전할 수 있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 때문일까. 역사는 북한의 가부장주의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사회적 엔지니어링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수령이 정하면 여성이 수령이 되지 못할 것도 없을 것 같다.

기고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 수석위원

팬데믹 이후의 부동산 투자

코로나19라는 뜻밖의 상황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경제가 위축됐다. 부동산 시장은 통상 경제상황, 수요와 공급, 소득 수준, 시장 유동성, 금리, 대출, 세금, 부동산 정책 등의 변수가 상호 작용하여 형성된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아무도 겪어 보지 못한 질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 주택 규제 정책과 맞물려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온라인시장의 확대로 좋지 않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쳤다. 전염병이라는 특징 때문에 유동인구가 줄다 보니 매출이 떨어지고,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들로 인해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감정원의 2019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를 보면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각각 11.7%, 6.2%로 전년 동기 대비 약 0.9%포인트 증가했다.

투자목적이 큰 재건축아파트는 재정비사업 규제와 맞물려서 투자 회수기간 장기화와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면서 가장 먼저 가격이 하락했다.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은 한국의 독특한 전세제도로 수익률 하락이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아 급격한 하락은 없지만, 오피스텔 분양시장 등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매입 여력이 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가능한 금액 내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찾고 있어 가격이 유지된다. 아파트 분양시장은 그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서울에서 3월 30일 청약접수를 진행한 '르엘 신반포'는 124.7대 1, 4월 21일 청약접수를 진행한 '호반써밋 목동'의 평균 경쟁률은 128대 1을 각각 기록했다. 분양시장 외 실거주 목적 주택시장도 거래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단기간에 무너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4·15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규제정책도 유지될 가능성이 큰 만큼 부동산시장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구분상가, 오피스텔 분양시장의 어려움과 재건축아파트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대출규제 및 세금 강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고가주택의 가격 조정도 당분간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신규 주택공급량이 부족하고 풍부한 유동자금의 대체 투자처가 없으며 실수요자가 여전히 풍부하기 때문에 큰 폭의 주택시장 급락은 없을 것이다.

무주택자 중 청약가점이 높다면 청약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렇지 않다면 매입 가능 금액을 파악해 저점 매수의 타이밍을 찾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다. 다주택자는 개인의 부동산자산 비중, 대출규모, 세금을 제외한 예상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매각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동산 자산가에 대한 세금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토지나 상업용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 부동산을 그냥 갖고 있다고 수익률이 보장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익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고 대출비중을 높이거나 전세자금을 이용한 갭투자 등 급한 투자는 금물이다. 투자기간을 장기로 잡고 세후 수익률을 예상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은 다양한 변수와 복잡한 정책 등으로 개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기자수첩

권태성 산업부/tskwon@

포스트 코로나, 진짜 실력은 2분기부터

예상외의 선방이었다. 전자업계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지난달 마무리됐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6조4473억 원에 달했고, LG전자도 21.1% 증가한 1조904억 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시장 전망치를 웃돈 8003억 원을 거뒀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 부품사들도 코로나19 사태에도 양호한 실적을 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한참 이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일제히 "2분기 실적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분기에는 코로나19가 국내와 중국 등 제한된 국가에서 유행했지만, 2분기 들어 국내 기업들의 최대 시장인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크게 확산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가전 부문은 2분기 큰 폭의 실적 하락이 확실시된다. 그동안 중국과 국내를 중심으로 빚어졌던 생산 차질은 글로벌 생산기지로 확산했고, 유통 매장 폐쇄와 더불어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됐다. 도쿄올림픽 등 스포츠 이벤트가 취소되면서 특수를 노리기도 어려워졌다. 반도체도 서버를 중심으로 버티고 있지만, 전방 산업이 침체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1분기는 전자기업들의 실력과 선제적인 조치로 버텨낸 시간이었다면, 2분기는 각국 정부와 기업의 협업으로 버텨내는 구간이다. 재난·재해에 버금갔던 돌발 이슈를 단일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게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혜택이 절실하다. 전자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내수침체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기업인들의 출·입국 지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노동 유연성 확대 △해외 인증기관의 시험·인증 유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조건 없는 신속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전방위적으로 도와야 한다.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고용으로 정부와 국민의 응원에 답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19 여파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고 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명언

"우리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능한 최대한 사회의 자연발생적 힘을 이용하고, 가능한 최소한의 강제력에 의존해야 한다."

'자유 시장경제 옹호자', '통화주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 경제학자. 그는 시장경제와 같은 자생적 질서를 계획경제와 같은 인공적 질서로 전환시키려는 모든 정치적 기도(사회주의, 합리주의 등)를 타도 대상으로 삼았다. 오늘은 그의 생일. 1899~1992.

☆ 고사성어 / 도행역시(倒行逆施)

순서에 따르지 않고 거꾸로 일을 한다는 뜻. 출전은 사기(史記) 오자서열전(伍子胥列傳). 오자서(伍子胥)는 초(楚) 평왕(平王)이 아버지와 형을 살해하자 복수를 위해 오(吳)나라를 섬겼다. 오나라가 초나라를 함락시키자 그는 평왕의 묘를 파내 시신을 300번 채찍질해 복수했다. 친구 신포서(申包胥)가 그를 나무라자 한 말. "이미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어 도리에 어긋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吾日暮途遠 吾故倒行而逆施之]."

☆ 시사상식 / 황혼육아

황혼기의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것을 말한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황혼육아가 증가하는 추세. 맞벌이 부부 중 절반 정도가 부모에게 양육을 맡긴다는 조사도 있다. 황혼육아를 하는 조부모의 경우 장시간 손주를 돌보면서 발생하는 척추·팔다리 통증, 우울증 등 일명 '손자병'을 호소한다.

☆ 유머 / 구두쇠 집안 풍속

구두쇠 전통이 있는 사오정 집안. 여친과 데이트하고 집에 들어오니 아버지가 "네가 오늘 또 얼마를 과다 지출했을까 싶어 잠이 안 오더구나"라고 하자 "5천 원 썼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나마 다행이구나. 차비가 3천 원 들었을 텐데, 더 쓰지 그랬니"라는 아버지의 말에 사오정이 한 대답. "1시간 걸어 왔어요. 그리고 걔한테 5천 원밖에 없더라구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논설실장 추창근 | 편집국장 김덕헌

논설실 (02)799-2669
자본시장1부 (02)799-2647
산업부 (02)799-2644
정치경제부 (02)799-2663
자본시장2부 (02)799-2648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사회경제부 (02)799-2612
금융부 (02)799-2665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국제경제부 (02)799-6741
부동산부 (02)799-2637
뉴스랩부 (02)799-2664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이슈&인물 금융인에서 국회의원으로 이 용 우 당선인

"자유·책임 동반 시스템, 답은 시장이 안다"

"기업들이 책임지는 시스템이 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다. 정부보다 시장이 문제를 빠르게 포착하고 해결력에서도 앞서기 때문이다."

4일 이투데이와 만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고양시정)은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이 금지하는 것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법에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용우 당선인은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한 세트'"라며 "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면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도 스스로 자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 공무원들이 아무리 애써도 '생존'을 놓고 몸소 부딪히며 경쟁하는 기업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 먹거리를 위한 혁신도, 징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 강화도 기업들이 생존을 담보로 내놓는 해답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나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의 판단은 실제 경영 일선에서 체득한 경험들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는 올해 초까지도 규제가 유독 심한 금융산업에 몸담고 있었다. 도전이 체질인 그는 동원증권(현 한국투자증권) 상무 시절 증권사 중심의 금융지주 설립을 진두지휘했다. 오로지 은행이 금융지주를 만들 수 있다는 '관행'을 깬 것이다.

이 당선인은 "당시 금융당국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증권 중심 금융지주 설립 허용을 주저했다"며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2011년에는 보험 중심인 메리츠금융지주도 설립됐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21대 총선 출마 전까지 카카오뱅크의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1000만 가입자 돌파라는 성공 신화를 썼다. 카카오뱅크는 다른 은행들과 달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잘못되면 우리가 책임진다"는 각오가 따른 결정이었다.

이 당선인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라는 큰 문제를 큰 문제로만 보면 해결할 수 없다"며 "작은 부분부터 규제 재정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면서 큰 흐름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자 관점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입법활동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지역구에 노후화된 주민센터, 공공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복지시설을 하나로 통합해 새로 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모두 주관 부처가 달라 통합 신축이 어려운데 이는 공급자 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국민의 편의성 입장에서 각 부처와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득주도 성장 방향 맞지만 디테일 약했다" = 이 당선인의 또 다른 과제는 '경제통'으로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의지는 현 정부가 주창해온 혁신성장, 공정경제와도 맞닿아 있다. 나머지 한 축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지만 섬세함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당선인은 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생존을 담보로 답을 내놓는 기업들이 정부보다 문제해결 능력이 앞설 수밖에 없다"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 혁신 성장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기업이 앞아서 하되 책임지게
정부보다 시장이 해결력 앞서
네거티브 규제·징벌적 손배
혁신성장·공정경제와 맞닿아

임금에 초점 맞춘 소득주도성장
자영업 비중 큰 현실 감안해야
벤처업계 요구하는 차등의결권
다른 주주 권익 침해 특혜 우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산소가 줄어드는 공간과 같아
총수요 끌어올리는 고용 유지
위기 벗어나 경제 지키는 길

이 당선인은 "소위 '신자유주의'나 '낙수효과'에 의한 경제 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 2008년 금융위기"라며 "이후 경제학계도 기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성장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야가 소득 불평등이 됐다"고 짚었다. 이어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 패러다임은 정지됐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됐다"며 "우리 정부는 임금 인상에 초점을 둔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 경제 구조는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한 디테일한 접근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가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특정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동안 벤처업계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숙원사업으로 건의해 왔고, 여당은 1월 총선 2호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1주에 의결권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은 다른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주주의 동의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특정인에 대한 경영 능력과 비전을 높이 사는 특혜이기 때문에 차등의결권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충격에 고용 유지가 핵심" = 이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산소(총수요)가 갑작스럽게 줄어든 공간(경제)으로 비유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외부 충격으로 산소가 줄어들었다면 서둘러야 할 것은 공기를 새로 주입하는 작업"이라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가구에 제공하는 방향이 맞았다"며 "긴급한 상황이므로 누굴 줄지 선별하고 자격 대상 여부에 대한 민원을 받으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당선인은 "세계 주요국들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총동원해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 성과는 올해 연말쯤 나타날 수 있다"며 "이때 늘어난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한 국가는 경제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가 지원 조건으로 고용 유지를 요구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배경에도 이런 인식이 있다"며 "고용 유지는 봉급 생활자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사설

한국판 '디지털 뉴딜', 기업자유 높여 시너지내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키로 한 '한국판 뉴딜'의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데이터·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非)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한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데이터 전(全)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기반 조성 △클라우드·사이버안전망 강화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체계 구축 등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지향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을 병행해 2~3년 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프로젝트 세부사업을 마련해 6월초 구체적 추진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코로나가 촉발한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혁은 디지털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우리가 선점해야할 미래이자 한국 경제의 활로다. 이 같은 '디지털 뉴딜'은 기존 산업의 근간과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의 출발이다.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에서 우리 기업들은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기업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 이후 경제환경과 세계 교역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략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선도, 비대면 산업 육성, K방역 및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돼 있다. 5G와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의 신산업 선점,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첨단제품 국내 생산기지 구축, 저유가 상황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 주력산업 재편 등 산업구조 혁신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바꿔 말하면 코로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든다는 뜻이다. 그만한 잠재적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게 있다. 정부가 아무리 방향을 잘 잡아도, 그것을 실행하고 국민경제의 성장과 일자리를 늘리는 주체는 기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이 기업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스스로 신성장 동력을 키우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기업이 생존이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든 스스로 혁신하고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을 막는 장애물부터 없애야 한다. 경제환경이 급변하는데 규제혁파는 진전이 없다. 뉴딜의 걸림돌이다.

영화로 보는 세상

코로나 국난을 통과하며 떠오른 '명량'

국내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명량'이다. 1700만 명이 보았다. 영화 관람 등급이 연소자 관람 가능에다 영화를 두세 번씩 본 사람들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사실 우리나라 영화 시장 크기에 이런 흥행 기록은 비정상이다.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명량'이 전대미답의 흥행 기록을 세울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스토리로 관객의 기대를 100% 만족시켜 주진 못했다는 게 영화계의 중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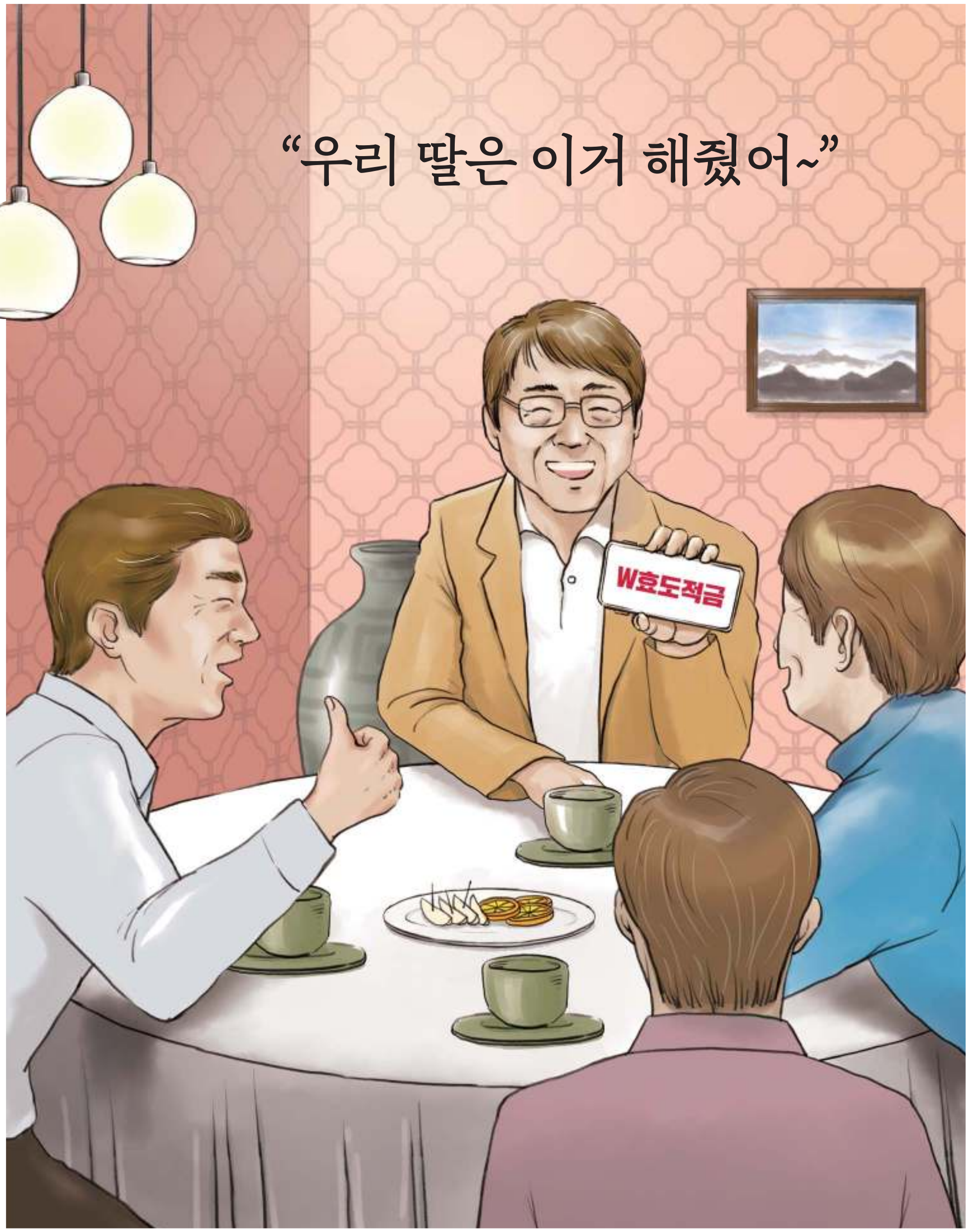
그러나 여기에는 시대의 '운'이 따라줬다. 이걸 운이라고 표현하기엔 어폐가 있지만 온 국민에게 크나큰 슬픔을 안겨준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불과 두 달 후에 영화는 개봉했다. 어처구니없는 이 대형 참사는 대한민국에 큰 물음을 던졌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란 무엇이며, 대체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무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지 국가가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며, 또 존재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까맣게 잊고 살아왔다. 그간의 신산스러운 우리 현대사가 그런 작동을 막아 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화 '명량'은 이런저런 헛헛함에 빠져 있던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에 따뜻함과 뭉클함 그리고 시대정신을 채워줬다. 바로 이순신이 보여준 '정신' 때문이었다. 그 정신은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되었다. 아들 이회가 이순신에게 묻는다. "이참에 모든 걸 놓아버리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시지요…. 설령 전장에서 승리한다 한들 임금은 반드시 아버님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나직한 음성으로 아들에게 이른다.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좇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는 법이다."

실로 가슴 먹먹했던 장면이었다. 아마도 이 명장면 하나로 몇백만 명 이상의 관객이 극장을 더 찾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간단명료해 보이는 이순신의 언명은 왕도 사상인 민본주의를 상기시켜 주고 있지만, 내면에는 어떤 사상과 이념, 제도보다 그 위에 백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 조직, 단체를 위해 개인은 언제든 희생 또는 손해를 봐왔던 한국 사회에 개인과 시민과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당시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로 던졌다. 이번 코로나 국난에 비로소 국가로부터 나 개인의 안전을 보호받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집권당에 기꺼이 표를 던졌는지 모른다.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뿌듯함을 선물하세요

W효도적금

자녀가 부모님 또는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효(孝) 테마 상품

기본혜택 • 최고 금리 연 1.6%(2020. 05. 01 기준/세전) • 오래오래 효도하세요~ 10년간 만기자동갱신
• 효도 자금 필요시 중도 인출 가능(1년 2회)

부가혜택 • 잊지 말고 전화하세요~ 부모님 기념일 알람 서비스 • 상조 서비스 할인 및 무료 컨설팅
• 치과, 안과 등 의료비 할인 정보 서비스 • 효도 여행에 필요한 환율 우대 서비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2012호(2020. 05. 04) 게시기한 : 2021. 04. 29 · 이 예금(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개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